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CONTENTS

테마	제목	페이지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4
0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과 탐구	10
03	삶과 죽음의 윤리	18
04	생명 윤리	25
05	사랑과 성 윤리	33
06	직업과 청렴의 윤리	39
07	사회 정의와 윤리	46
08	국가와 시민의 윤리	54
09	과학 기술과 윤리	62
10	정보 사회와 윤리	69
11	자연과 윤리	77
12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85
13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92
14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98
15	지구촌 평화의 윤리	104
	실전 모의고사 1회	112
	실전 모의고사 2회	117
	실전 모의고사 3회	122
	실전 모의고사 4회	127
	실전 모의고사 5회	132

이 책의 구성과 특징

STRUCTURE

테마별 교과 내용 정리

주제별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THEME
01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 현대 생활의 변화
 - 인간의 자유 확대
 - 전통과 현대 생활의 차이
 - 현대 생활의 특징
 - 현대 생활의 문제
 - 현대 생활의 발전
- 살전 윤리의 중요성
 - 살전 윤리의 개념
 - 살전 윤리의 필요성
 - 살전 윤리의 실천
 - 살전 윤리의 발전
- 살전 윤리의 실천
 - 살전 윤리의 실천 방법
 - 살전 윤리의 실천 장소
 - 살전 윤리의 실천 대상
 - 살전 윤리의 실천 결과

112

수능 실전 문제

01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02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113

수능 실전 문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응용력과 탐구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학습 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실력을 테스트하고,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수능 시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01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02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03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04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112

수능 실전 문제

01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02 현대 생활과 살전 윤리

113

정답과 해설

정답의 도출 과정과 교과 내용의 연결을 설명하고, 오답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유사 문제 및 응용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활용
강의활용자료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모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1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

(1)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윤리

① 인간의 특성과 윤리

-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며, 인간은 열려 있는 존재임
-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② 윤리의 의미와 특징

- 의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
- 특징: 당위적 태도를 강조하며 규범성을 지님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

①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

-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
-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들에 직면함 →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움

②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

구분	핵심 문제
생명 윤리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 등에 관한 문제
성과 가족 윤리	사랑과 성의 관계, 성차별, 성의 자기 결정권, 성 상품화, 결혼과 부부 윤리, 노인 소외 등에 관한 문제
사회 윤리	직업 윤리, 공정한 분배, 차별, 시민 불복종 등에 관한 문제
과학 기술과 정보 윤리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 등에 관한 문제
환경 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 기후 변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문제
문화 윤리	예술, 대중문화, 의식주, 소비, 다문화, 종교 등에 관한 문제
평화 윤리	사회 갈등, 통일, 국제 분쟁, 해외 원조 등에 관한 문제

2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1) 윤리학의 의미와 분류

- ① 의미: 도덕적 규범과 의무를 탐구하는 학문
- ② 특징: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을 탐구함
- ③ 윤리학의 분류

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함 예)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
	실천 윤리학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 삶에 실천적 지침을 제공함 예) 생명 윤리, 정보 윤리, 환경 윤리 등
메타 윤리학 (분석 윤리학)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리를 분석함
기술 윤리학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記述)함

(2)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① 등장 배경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
-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 → 구체적, 실천적인 도덕 판단과 행위 지침이 필요함

② 특징

-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
-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다룸
-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
- 현실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윤리 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함

자료와 친해지기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관계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 '정당화될 수 있는'과 같은 단어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

도덕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 규범 윤리학과, 도덕적 언어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고,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하므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3 도덕적 탐구의 방법

(1) 도덕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

- ① 의미: 도덕적 지식을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
- ② 특징: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하여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선악을 밝혀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 중점을 둠
- ③ 도덕적 탐구를 위한 사고 유형

논리적 사고	전제로부터 결론(주장)을 타당하게 도출하는지 사고함
합리적 사고	사고와 행위를 참된 근거와 원칙에 따라 사고함
비판적 사고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배려적 사고	도덕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

(2) 도덕적 탐구의 과정과 도덕적 추론의 방법

① 도덕적 탐구의 과정

① 윤리적 쟁점(딜레마) 확인	발생한 윤리적 문제의 쟁점과 원인을 검토하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파악
②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
③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함)
④ 최선의 대안 도출	토론이나 숙고, 성찰을 통해 최선의 대안 마련
⑤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	탐구 과정을 통해 달라진 생각에 대한 반성과 정리

② 도덕적 추론의 방법

도덕 원리 (대전제)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함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 판단 (소전제)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함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 (결론)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검토함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

4 윤리적 성찰과 실천

(1) 윤리적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

- ① 윤리적 성찰의 의미
 -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적 행동, 인격 특성을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도덕적으로 판단함
 - 자신의 도덕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함
- ②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2) 윤리적 성찰의 방법

동양	유교	일일삼성(一日三省), 거경(居敬), 신독(慎獨)
	불교	참선(參禪)
서양	소크라테스	산파술(끊임없는 문답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	중용(감정과 행동에서 적절함을 추구함)

(3) 토론을 통한 성찰

- ① 토론의 역할
 -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 주관적인 의견이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줌
- ② 일반적인 토론의 순서

① 주장하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함
② 반론하기	상대방 주장의 오류나 부당성을 밝힘
③ 재반론하기	상대방 반론이 옳지 않음을 밝히거나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함
④ 정리하기	상대방의 반론을 참고하여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발표함

(4) 윤리적 실천을 위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 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함
- ②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성찰의 중요성

선비는 세상에 나가 관직을 하든지 집 안에 가만히 은거하든지, 때를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못하든지,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닦고 올바른 의리를 행할 따름이다. 스스로 높은 곳에 처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서둘러 나서지 않아야 하며, 모든 일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옹감하게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근본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다. 따라서 예전의 선비들은 공부에 대해 흠여지고 해이해져 놓아 버린 마음, 즉 방심(放心) 상태를 반드시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부는 하나를 주로 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야[主一無適(주일무적)] 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삼가야[戒慎恐懼(계신공구)] 한다. - 이황, "함양과 체찰" -

이황은 공부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며 성찰이 있어야 참된 공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황은 유교 가르침의 핵심을 학식을 넓혀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는 함양(涵養)과 몸소 자세히 살피고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체찰(體察)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심성을 올바르게 갈고닦는 것과 통한다고 보았다.

01

▶ 23058-0001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윤리학에 사용되는 단어나 언어적 표현에 관한 정의(定義) 작업은 그 후의 이론적 활동을 위한 선행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만약 윤리학이 선(善)에 관한 언어적 정의를 하는 작업으로 그 과업을 마무리한다면 이는 예비 작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윤리학이 탐구하는 여러 문제들은 단지 언어에 대한 정의 작업만이 아니며, 윤리학의 본업이 윤리학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윤리학은 언어적 정의 작업을 통해 획득한 도덕의 최고 개념인 선에 관계하는 온전한 지식 내용을 경험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해야 한다. 즉 윤리학은 심리학에 근거한 사실 과학으로서 현실적인 경험 세계 안에서 도덕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그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덕 언어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경험적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가?
- ㄴ.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덕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 ㄷ. 윤리학은 구성원들의 도덕 관행을 탐구함으로써 공동체의 행동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 ㄹ.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사실로서의 도덕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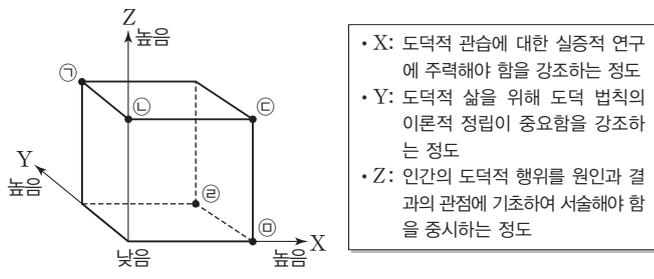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2

▶ 23058-000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윤리학의 과업은 최고의 도덕 법칙이나 다수의 도덕 법칙을 확정하고 확립하는 데 있다. 즉 윤리학의 최종 목적은 도덕적 삶을 위한 행위 규칙으로서 도덕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정식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행위 규칙으로서 도덕 법칙을 체계화하는 것으로부터 윤리학은 시작되어야 하며, 행위 규칙으로서 도덕 법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윤리학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 (나) 윤리학의 과업은 개인의 현실적인 도덕적 삶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정확하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것이다. 개인의 도덕 판단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자 사회적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 또한 탐구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3

▶ 23058-0003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과 추론이 진행되는 인지 구조를 탐구하는 분야,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행태의 생물학적 기원과 변모 과정을 밝히는 분야, 윤리적 신념의 분포 양태를 조사하는 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이 세 분야는 모두 윤리학의 주된 목표인 윤리와 관련된 공시(共時)적 혹은 통시(通時)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을: 윤리학은 도덕규범 자체를 체계화하여 제시해야 하며, 다른 규범에 대해 때로는 이를 옹호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문화적 차이를 넘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추상적 원칙을 중심으로 한 도덕규범을 탐구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음으로써, 도덕 판단의 정당성이 판단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판단의 논리, 도덕의 인식론적 정당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의미를 갖고 실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규범의 본성에 관심을 가지지만 어떤 구체적 규범이 옳은지를 보이고자 하지는 않는다.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 →^A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윤리학은 경험 과학의 일종으로 도덕 현상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윤리학이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행동 간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E: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와 가치 판단을 다루는 규범적 성격을 지닌 분야임을 간과한다.
- ④ D: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윤리학이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도덕규범을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04

▶ 23058-0004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속성, 도덕과 관련된 우리의 진술이나 태도, 윤리적 판단의 성격에 대해 그 의미나 존재론적 특성 그리고 인식 가능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윤리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행위 일반의 옳고 그름, 동기나 의도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조건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윤리학은 도덕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하므로 도덕의 내용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윤리 이론을 정립하여 도덕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기

- ㄱ. (가)는 ‘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나)는 ‘어떤 행위가 선한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가)는 윤리적 판단에 관한 논리적이고 인식론적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행위 할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ㄷ. (가)는 (나)와 달리 윤리학이 도덕규범을 정립하기보다 윤리학의 근본 개념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ㄹ. (나)는 (가)와 달리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이 참 또는 거짓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5

▶ 23058-000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도덕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사 허용 여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윤리학은 이러한 윤리 이론에 대한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p>
(나)	

- ① A: 윤리학은 도덕 행위자의 신념이나 행위 동기에 대한 일체의 가치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
- ② A: 윤리학은 행위자의 도덕적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바람직한 행위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 ③ B: 윤리학은 궁극적으로 실천을 지향하므로 이론의 탐구보다 이론의 응용을 중시해야 한다.
- ④ B: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윤리적 삶을 안내해야 한다.
- ⑤ C: 윤리학은 도덕 법칙의 규범적 요구와 개개의 도덕 행위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06

▶ 23058-0006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명료화하고 도덕적 논증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사형, 안락사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p> <p>병: 윤리학은 신, 이성 또는 행복에 대한 요구와 같이 도덕적 책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관한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p>
(나)	

- ① A: 도덕 추론의 논리성 검증이 도덕규범의 일관된 체계 정립보다 중요한가?
- ② A: 각 사회의 고유한 도덕규범을 가지 중립적인 문화적 사실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③ B: 도덕규범은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④ C: 도덕규범의 실천적 적용을 모색할 때 이론 윤리학을 배제해야 하는가?
- ⑤ D: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07

▶ 23058-0007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자네와 나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는 인생에서 늘 행복을 쫓아 이를 추구한다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결코 구체적으로 행복하거나 자신의 현재 모습에 완전히 만족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네. 이것은 인간의 경향성이 부단히 변하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네. 즉 참된 행복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원칙은 이성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하지만 원칙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자라도 고통 없는 삶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만족과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영리함이 필요하다네. 고통이 영혼 속에 침투하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네. 영혼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쾌락이나 슬픔을 멀리하고 원칙에서 비롯된 확고부동함을 따르는 것이 곧 참된 만족이며 바람직한 삶이라네.

보기

- ㄱ. 원칙의 준수로부터 참된 행복이 비롯되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ㄴ. 자신이 정념에 종속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받아들일 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ㄷ.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헛된 행복으로 인한 불만족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ㄹ. 경향성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에서 비롯된 확고부동함을 따라 행동한다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 23058-0008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적 관점을 가설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관점에 대한 대안 모색과 새로운 관점의 설계가 온전히 허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한 윤리적 관점이 혼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무질서를 한탄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서로 다른 윤리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비판적 도덕 철학을 통해 기존의 지배적인 윤리적 관점에 대한 정당화가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판적 도덕 철학의 과제는 지배적 도덕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기존의 윤리적 관점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개선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A

- ㄱ.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절대시하지 말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ㄴ.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윤리적 관점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ㄷ. 윤리 문제 해결에서 지배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해결책은 정당화가 불가능한 독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ㄹ. 가치의 무질서는 윤리적 관점의 혼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원적 접근을 지양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 유교 윤리적 접근

(1) 유교 윤리의 특징

- ①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여김: 공자는 인(仁)을 인간 내면의 도덕성으로 보았고, 맹자는 사단(四端)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봄
- ② 성실과 배려를 도덕적 삶의 실천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김: 충서(忠恕)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랑인 인(仁)을 실천하고자 함

충(忠)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임
서(恕)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라는 것임

③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

공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신분에 맞는 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함
맹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인 오륜(五倫)을 강조함

- ④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正義)를 중요하게 여김
 -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군자(君子)로,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을 소인(小人)으로 구별함
 -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할 것(見利思義)을 강조함
 -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함

(2) 유교 윤리의 시사점

- 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②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 소외와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덕목과 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③ 지나친 개인주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불교 윤리적 접근

(1) 불교 윤리의 특징

- ① 연기(緣起)적 세계관

-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깨달음을 강조함
- 연기에 대한 자각은 자기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慈悲)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 ② 평등적 세계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佛性)을 지닌 평등한 존재임
- ③ 주체적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 등과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2) 불교 윤리의 시사점

- 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음
- ②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어 생명 경시 풍조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3 도가 윤리적 접근

(1) 도가 윤리의 특징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강조함
 - 노자: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실천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함 →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
 - 대규모의 집단생활보다 자연에 따라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국 과민(小國寡民)을 이상적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함
- ②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함
 - 장자: 좌망(坐忘)과 심재(心齋)의 수양을 통해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함 → 제물(齊物)의 경지

(2) 도가 윤리의 시사점

- ①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며,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 참된 사람(真人)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옛날의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다. 옛날의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으며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道)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 "정자" -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진인(真人), 지인(至人), 신인(神人)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표현은 달라도 모두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시비(是非)나 선악(善惡)을 분별하지 않으며,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면서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론적 접근

(1) 자연법 윤리

- ① 자연법: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 ② 자연법 윤리: 자연법을 윤리의 기초로 보는 이론으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고 봄
- ③ 스토아학파: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음
- ④ 아퀴나스: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함
- ⑤ 자연법 윤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생명의 불가침성과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함

(2) 칸트 윤리

- ①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봄
- ②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음
- ③ 도덕 법칙(정언 명령)

보편주의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

(3) 의무론적 윤리의 시사점

- ① 자연법 윤리: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
- ② 칸트 윤리: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5 공리주의적 접근

(1)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

- ① 윤리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인
- ② 도덕과 입법의 원리: ‘공리’ 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2) 공리주의 사상가의 입장

벤담 (양적 공리주의)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있음 → 쾌락을 계산하기 위한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함
밀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까지도 고려해야 함

(3)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하여 개별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이나 행복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
규칙 공리주의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봄

- (4) 공리주의의 시사점: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함

6 덕 윤리적 접근

(1) 현대 덕 윤리의 특징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
- ② 행위자 중심의 윤리: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 ③ 자연적 감정과 동기 중시: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주목함
- ④ 매킨타이어: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주목하여, 도덕적 판단에서 구체적이며 맥락적인 사고를 중시할 것을 주장함

- (2) 현대 덕 윤리의 시사점: 개인의 도덕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7 도덕 과학적 접근

- (1) 신경 윤리학: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의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함 (예) 뇌의 전면 영상을 보여 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
- (2) 진화 윤리학: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봄
- (3)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과정, 도덕성의 형성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도움을 줌

자료와 친해지기 칸트의 도덕 법칙의 특징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 전체에게, 단지 우연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고 보았다.

01

▶ 23058-000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한동안 나라 안팎에서 유행했던 질병으로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항상 인(仁)으로 대해야 한다네. 무릇 인이란 남을 섬기는 공경(恭)과 남을 받아들이는 관용(寬), 남을 믿는 신뢰(信)와 남보다 먼저 행하는 민첩함(敏), 남에게 베푸는 은혜(惠)를 뜻한다네. 그러므로 밖에 나가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큰 손님을 뵈듯이 하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네. 이렇듯 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을 달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라네.

- ① 인은 내면의 덕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 ② 인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계산하려는 마음인가?
- ③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恕)은 인을 실천하는 것인가?
- ④ 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호혜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⑤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가?

02

▶ 23058-00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 주장에 대해 제시할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어 놓았고 마땅히 그 가운데 비어 있음이 있으니 그릇으로서 쓸모[用]가 생겨난다. 있음[有]이 이로울 수 있는 이유는 비어 있음[無]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을: 색(色)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무상(無常)한 것이며 괴로운 것이다. 따라서 색을 나의 것[我所]이며 내[我]이며 나의 본체[我體]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내가 아니다[無我]. 또한 정신의 세계인 수(受)와 상(想), 행(行)과 식(識) 역시 영원한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니며 이 또한 나의 것도 나의 본체도 아니다.
(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이나 지능, 외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모습과 능력을 갖춘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맞춤형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인위적인 유전자 편집이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ㄴ. 갑: 자연적 본성을 해치지 않아야 문명이 발달한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 ㄷ. 을: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우월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갑과 을: 유전적 완벽함을 위한 탐욕이 올바른 삶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므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03

▶ 23058-0011

갑, 을 사상이들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위치에 서서 큰 도(道)를 행한다. 뜻을 이루면 백성과 더불어 그 길을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부귀(富貴)도 능히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없고 빈천(貧賤)도 능히 그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위엄과 무력도 능히 굴복시킬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대장부(大丈夫)라 한다.

을: 적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뽐내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실패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도 우쭐거리지 않으며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니, 이것은 얕이 도의 경지에 오른 것이며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진인(真人)이라 한다.

보기

- ㄱ. 갑: 의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의(義)에 밝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ㄴ. 갑: 일체 욕구를 배제하고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사단(四端)을 확충해야 한다.
- ㄷ. 을: 명예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외물의 속박을 벗어나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본성[性]을 거스르지 말고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4

▶ 23058-0012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p>1</p> <p>스승님, 수행자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요?</p>	<p>2</p> <p>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 즉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연(緣)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네. 모든 만물의 생멸(生滅)이 상호 관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緣起)의 법(法)이라네.</p>
<p>3</p> <p>그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4</p> <p>계율을 지키는 공부(戒學), 청정한 선정에 머무르는 공부(定學), 진리를 참되게 아는 공부(慧學)로써 정진해야 한다네.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은 자는 괴로움이라는 과보(果報)를 받지 않고 생사의 흐름을 끊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네.</p>

- ① 만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무명(無明)을 추구하여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
- ②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이라고 보는 연기(緣起)를 깨달아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제거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④ 있음과 없음 모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통해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
- ⑤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아(無我)를 자각함으로써 삶이 무상(無常)함을 깨달아야 한다.

05

▶ 23058-00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도끼로 베어 버려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에게도 인의(仁義)의 마음이 있었지만 도끼로 나무를 베듯 잘라 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본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야기(夜氣)*조차 보존하기 어렵다. 야기조차 보존할 수 없으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만약 제대로만 기른다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게 되고,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 야기(夜氣): 한밤에 자라는 좋은 기운

<사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초대받은 A는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유명 식당 분점이 인근에 들어와 친구의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A에게 포털 사이트의 음식점 후기 게시판에 그 식당의 음식 맛을 폄하하는 글을 올려 달라고 부탁을 했고, A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인간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므로 친구가 본성을 교화하여 선하게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 ② 거짓말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형성하여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 ③ 일반 사람의 본성과 성인(聖人)의 본성이 다르므로 성인의 본성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 ④ 선한 사람은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사랑하므로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세요.
- ⑤ 친구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익보다 의로움[義]을 우선하는 것이 도(道)에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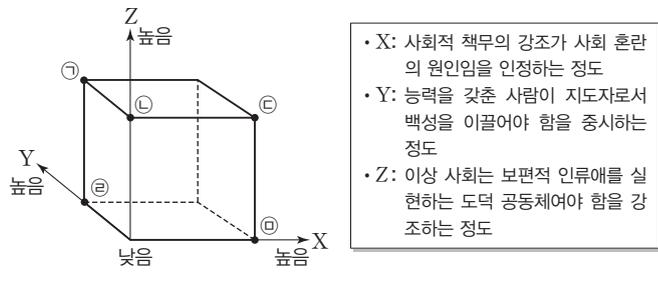
06

▶ 23058-0014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한다. 군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병장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이 그 음식을 달게 여기며 그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가 마주 보고 있어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나)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상에서는 천하를 공적(公的)인 것으로 여기니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신의(信義)를 강론하고 친목을 닦는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재화가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자기 집에만 저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쁜 모의(謀議)가 없으며, 도둑질하는 자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7

▶ 23058-00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며 이것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이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행복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의문시하는 모든 시도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 시끄러운 소음을, 이성이 아닌 번덕을, 빛이 아닌 어둠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p> <p>을: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로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p>
(나)	

- ① A: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가?
- ② A: 타인에게 행복을 주려는 의도를 지닌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 ③ B: 개인의 쾌락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④ B: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과 이성적 판단을 따르는 것은 상호 무관한가?
- ⑤ C: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한가?

08

▶ 23058-00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도덕 법칙을 의무에서 준수하는 것이지, 명령 없이 저절로 하고 싶게 된 동기에서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을: 덕은 전체 삶의 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삶의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천과 개인적 삶이 필요로 하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한다. 모든 실천은 역사를 지니며 실천의 역사는 그것이 편입되어 있는 전통의 역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례>

신문 기자인 A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 중인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다. 유명 감독과 배우가 등장하여 주목받는 영화이므로 취재를 위해 세부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약속하고 시나리오를 봤지만, A는 막상 취재가 끝나자 시나리오 내용을 독점 공개하여 특종을 잡을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소수 영화 관계자보다 다수 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선택하세요.
- ② 갑: 보편화될 수 없는 준칙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③ 을: 약속을 지킴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신뢰의 덕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세요.
- ④ 을: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위 원칙을 따르는 것인지 판단하세요.
- ⑤ 갑과 을: 약속을 지키는 모범적 언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종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세요.

09

▶ 23058-00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자연법이란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며, 신의 빛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법을 통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며 동식물도 신의 영원법을 분유받았으므로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다.</p> <p>을: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이다.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p> <p>병: 윤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이다. 행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기준으로 그 양이 측정될 수 있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무조건적 명령에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임을 간과한다.
- ② B, E: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 인간의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도덕 원리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도덕 원리 안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모두 버리고 신을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

10

▶ 23058-00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행위의 실천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실천이란 단순한 행위나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유기적 행위가 된다. 이런 실천을 한 사회 속에서 가능하게 해 주는 배경적 조건이 제도이다. 즉 실천은 특정한 사회가 역사적 전통 속에서 갖추어 놓은 제도에서 구현되는 목적적 행위인 것이다.</p> <p>을: 행위의 실천은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은 공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각각의 규칙을 따랐을 때 결과의 공리성을 평가함으로써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는 규칙을 산출해야 하며, 개별 행위는 그 규칙을 따를 때 옳은 행위가 된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맥락에 따라 도덕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도덕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
- ② A: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내면의 덕성을 함양해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 ③ B: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진다.
- ④ B: 자연적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 사유를 기반으로 도덕 판단을 내려야 한다.
- ⑤ C: 규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11

▶ 23058-0019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이타적 감정은 생래(生來)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도덕의 기원이 되는 성향으로, 인간이 이기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이타성은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자제시키기 위해 진화되었다. 진화는 이타적 행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도록 하는 생물학적 규칙을 우리 안에 내장해 놓았으며, 이로부터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사고 및 행동과 매개된다.

(나) 이타적 행동은 비물질적 자아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전기적 신호의 발생에 의한 것이다. 인간 정신은 뇌세포 간의 특정한 형태의 신호 전달 패턴에 상응하며, 뇌 신경 정보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상태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라는 물리적 원인으로부터 인간 행위가 설명될 수 있으므로, 신경 과학적 차원에서 뇌 기능 향상은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적 정서 및 인지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 ㄱ. (가): 인간이 다른 인간과 협력하는 것은 진화를 거치면서 내장된 생물학적 규칙에 기인한다.
 ㄴ. (나): 뇌의 작용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인간 행위에 대한 심화된 설명이 가능해진다.
 ㄷ. (가)와 (나):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덕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ㄹ. (가)와 (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물질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2

▶ 23058-00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가지 쾌락에 대해 그 둘을 똑같이 잘 알고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훨씬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저급한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례>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생 A는 언제부터인가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쾌감을 느꼈다. 이 문제로 대다수 세대가 힘들어해서 입주자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A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손 편지를 써서 각 세대 문에 부착하였고, 그 후로 담배 냄새가 사라지게 되어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 ① 이웃의 이익을 위한 금욕의 실천이 그 자체로 선임을 알려 주었으므로 옳은 행위이다.
 ② 흡연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더라도 자신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옳지 않은 행위이다.
 ③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행위이다.
 ④ 다수의 불쾌함 해소를 위해 담배를 피우는 소수의 쾌락을 무시했으므로 옳지 않은 행위이다.
 ⑤ 성찰과 숙고를 통해 바람직한 쾌락을 판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므로 옳은 행위이다.

1 출생·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1) 출생의 생물학적·윤리적 의미

- ① 생물학적 의미: 수정된 생식 세포가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쳐 모체에서 독립하는 것
- ② 윤리적 의미
 - 유교: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 → 삶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
 - 자연법 윤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
 -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 다양한 인간관계의 시작

(2) 죽음의 윤리적 의미

① 죽음의 특성

평등성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옴
일회성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단 한 번 경험함
불가피성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음
비가역성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릴 수 없음

② 죽음에 대한 동양 사상의 입장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해야 한다고 봄 • 공자: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 죽음보다는 도덕을 실천하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짐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死]은 생(生), 노(老), 병(病)과 더불어 고통임 • 석가모니: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둔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죽음은 윤회의 과정으로 현세의 의도적 행위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봄
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 • 장자: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며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함

③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

플라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처럼 생각하였고,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봄 •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에피쿠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임 •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 있으며,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봄

2 출생·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1)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 ①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의 문제: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짐
- ②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우선 문제

찬성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임 •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할 권리가 있음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인간임 •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인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 • 잠재성 논거: 태아는 일정한 발생 과정을 거쳐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 사람들은 죽음을 최고 악이라 말하면서 두려워하기도 죽음이 삶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죽음을 열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부재를 악으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

•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만약 몸 전체가 분해된다면 영혼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감각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유기체 안에 있으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감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몸이 현재의 모습과 더 이상 같지 않을 경우에도, 영혼은 감각할 수 없다. ... (중략) ... 그러므로 영혼이 비물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 에피쿠로스,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 -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세계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은 이런 원자가 분리되어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죽으면 감각이 소멸되므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2) 자살의 윤리적 문제

- 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
- ②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임
- ③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킴
- ④ 자살에 대한 동서양 사상의 입장

유교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不敬毀傷]이 효(孝)의 시작임
불교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함
자연법 윤리	자살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에 위배됨
칸트	자살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임
쇼펜하우어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가 고통의 원인인데,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임

(3)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 ① 안락사의 의미: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 ② 안락사의 유형
 -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구분

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고 가족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경우

-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른 구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약물의 직접 주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③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찬성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시기, 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인간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짐 •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줌 • 연명 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전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함 •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 • 자연법 윤리: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 •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됨

(4) 뇌사의 윤리적 쟁점

- ① 뇌사의 의미
 -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 뇌사에 이른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함
 - 뇌사에 이른 환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함
- ②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음 →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
- ③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찬반 논거

찬성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임 •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줌 •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므로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님 •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태도임 •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

자료와 친해지기 자살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

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이다.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법이 있다. 첫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자기 보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욕구로서 암수 결합의 욕구, 자식 교육의 욕구가 있다. 두 욕구를 행위로 옮기는 규범과 원리들은 자연법에 해당한다. 셋째, 무지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법의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자연법은 자기 보존, 남녀의 결합, 자녀의 양육,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과 관련된 것

이므로 자살이나 유아 살해, 살인과 폭력 등은 자연법적으로 악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인 자기 보존 욕구는 자연법에 속하는 것으로 자연법은 달리 반박할 수 없는 자명한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자살은 신의 의지가 우리에게 부여한 자연적 욕구인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법적으로 악이며 무조건적으로 악이라고 보았다.

01

▶ 23058-002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 철학으로 생애를 보낸 사람은 죽음에 임하여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기가 죽은 뒤에는 저승에서 최대의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을 것이 당연하겠지. 죽음은 혼이 몸에서 벗어남, 즉 몸은 몸대로 혼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고, 혼은 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네. 혼은 로고스*를 따르며 언제나 이에 열중함으로써 참된 것과 신적인 것 그리고 의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바라보며 이런 것에 의해 양육되어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뿐 더러, 죽어서도 동류(同類)의 것한테로 가서 인간적인 나쁜 것들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하네. 만약에 혼이 몸에 속하는 어떤 것도 함께 끌고 가지 않고서 순수한 상태로 몸을 떠나게 되면 혼은 일생 동안 자발적으로는 전혀 몸과 어울리지는 않고 오히려 몸을 기피하며 이를 수련하기를 늘 해 왔기에 이는 바르게 철학하는 것이 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며, 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죽는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로고스: 정확한 사유를 통한 추론

- ① 죽음은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인가?
- ② 죽음에 대한 희망에 차 있는 사람들은 철학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인가?
- ③ 죽음을 통해 영혼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가?
- ④ 죽기 전까지의 꾸준한 수련이 죽음 후에 영혼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가?
- ⑤ 죽음 이전에도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가?

02

▶ 23058-002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命]이다. 저 밤과 아침의 일정한 과정이 있음은 자연의 모습이다. 진인(眞人)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의연하게 갔다가 의연하게 돌아올 뿐이다.</p> <p>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명(命)에 달려 있고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의지를 가진 선비와 인간다운 인간은 살기를 구하여 인간다움[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인간다움을 이루는 일은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동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삶과 죽음을 분별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 ㄴ. B: 죽음은 인간의 의지로 좌우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 ㄷ. B: 삶에 집착하는 것보다 도(道)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ㄹ. C: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애도(哀悼)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3

▶ 23058-002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인식을 통해 감각 세계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예지적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육체와는 반대로 스스로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혼이 감각을 신뢰하게 되면 가변적이고 동요로 내몰리며, 그 반대로 영원하고 불변적인 이데아에 속하게 되면 오류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게 되는데 이 상태를 바로 지혜라 부른다.
 을: 우리는 죽음을 최고 악이라 말하면서 두려워하다가도 죽음이 삶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죽음을 열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부재를 악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죽음을 겪게 되는 주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② A: 죽음이란 감각의 소멸이므로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가?
- ③ B: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은 가장 훌륭하게 사유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 ④ C: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자 영혼의 해체이므로 불멸에 대한 갈망은 무의미한가?
- ⑤ C: 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므로 순수하게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가?

04

▶ 23058-0024

(가) 사상의 입장에 비해 (나)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삶에 대해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말하겠으며,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효(孝)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상(喪)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상을 치를 때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낮고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 태어남으로 인하여 늙음[老], 죽음[死], 근심[憂], 슬픔[悲], 괴로움[苦], 번뇌[惱] 등이 있다. 이로부터 생(生)과 사(死)의 근본을 사유하니 그 쉬지 않고 도는 것이 마치 수레에 바퀴가 있어 수레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 ① ㉠ ② ㉡ ③ ㉢ ④ ㉣ ⑤ ㉣

05

▶ 23058-0025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p>1</p> <p>스승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p> 	<p>2</p> <p>천지도 나와 나란히 생기고 만물도 나와 하나이므로 만물은 모두 하나라네. 무릇 귀나 눈이 좋아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덕의 조화된 경지에서 노닐게 하여 만물을 동일한 견지에서 바라보면,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p> 
<p>3</p> <p>그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4</p> <p>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가 죽은 것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네. 이를 깨달으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네. 옛날에 이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懸解)이라고 불렀다네. 그러니 때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네.</p> 

- ① 삶과 죽음을 순환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 ②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이 준 것이므로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③ 삶과 죽음은 세상 만물의 변화 과정의 하나일 뿐이므로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다.
- ④ 삶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자유로울 수 있다.
- ⑤ 삶과 죽음에 우열은 없으므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산 사람처럼 예(禮)를 다해야 한다.

06

▶ 23058-0026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존재의 일상적 실존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이나 자신이 아닌 다른 현존재들에 기초해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세계-내-존재'로서 사물과 타인들에게 퇴락해 있는 현존재를 세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으로 존재할 때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의 가능성은 은폐되며, 현존재는 비본래적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현존재의 비본래적 모습은 죽음 앞에서 불안에 대한 용기가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인식할 때 현존재는 불안과 더불어 나의 본래적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즉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통해 죽음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기

- ㄱ. 본래적 존재에게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자 하나의 객관적 사건에 불과하다.
- ㄴ. 본래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 ㄷ.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를 때 현존재는 본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 ㄹ.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할 때 현존재는 고유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7

▶ 23058-002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법이란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이다.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다. 첫째, 식물과 동물의 자기 보존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자기 보존 법칙은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 동물과 인간에게는 암수 결합, 자식 교육의 욕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은 자연법에 속한다. 셋째, 인간은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법의 내용을 다룬다.

을: 자연의 법칙이 감각에 의해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자연은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연으로서 존립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의 사명은 생명을 촉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모든 의무의 최상 원리와 전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 ① 갑: 자살은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한 신의 뜻에 부합한다.
- ② 갑: 자살은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자연적 성향에서 비롯되므로 허용 가능하다.
- ③ 을: 자살은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킨다.
- ④ 을: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훼손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의무를 훼손한다.
- ⑤ 갑과 을: 자살은 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당화되므로 무조건적 악이라고 볼 수 없다.

08

▶ 23058-002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생명이란 전체로서 유기체의 기능이 통합된 상태로 뇌, 심장, 폐의 상호 작용이 이러한 통합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이 가운데는 뇌가 전체로서의 유기체를 통합하는 기능에서 중추 기관이므로 뇌 전체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은 전체로서 유기체의 통합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죽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격이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며, 인간 고유의 본질적 기능은 정신 활동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대뇌와 피질의 고등 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만으로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본다.

- ① 자의식의 영구적 상실은 죽음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조건임을 간과한다
- ② 인격성을 상실한 유기체를 살리기 위한 의무는 부당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야만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짐을 강조한다
- ④ 뇌 기능의 정지가 아닌 심장과 폐 기능의 정지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정신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경우도 죽음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09

▶ 23058-002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죽음을 초래하는 적극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하여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죽어 가는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p> <p>을: 죽음 이외에 고통을 극복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환자의 고통을 종식하기 위해 약물 주입과 같은 생명을 단축하는 구체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p> <p>병: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 실현도 아니고 자유 보장도 아니다. 어떤 이유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 보장에 예외를 둘 경우 그것이 남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고통을 종식한다는 명분하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p>
(나)	

- ① A: 고통을 멈추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끊는 의사의 적극적 행위가 정당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치는 중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E: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죽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 인간의 생명 존중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연명 치료의 지속이 죽어 가는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 23058-0030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태아는 모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함으로써 점차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태아의 잠재성이 실현된 존재로 태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와 태아로부터 비롯된 인간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태아는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태아가 비록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지만, 태아는 성숙한 인간과 같은 합리적 능력이나 자의식을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격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간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지 못하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인간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① 모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함으로써 태아는 잠재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② 태아는 생명권을 지닌 존재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③ 태아는 성인과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차이가 있는가?
- ④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니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인가?
- ⑤ 태아가 자의식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1) 생명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 ① 생명 윤리의 의미: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 →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함
- ② 생명 윤리의 필요성: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하며, 생명 과학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함
- ③ 동서양의 생명관

동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가: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함 •불교: 모든 생명은 연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인간은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함
서양	그리스도교: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도 일정한 위치를 가짐

(2) 생명 복제와 관련된 생명 윤리 문제

- ① 생명 복제의 의미: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
- ② 생명 복제의 구분: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로 나뉨
- ③ 동물 복제에 대한 입장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유지할 수 있음 •희귀 동물을 보존하고,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음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임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음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

④ 인간 복제에 대한 입장

- 배아 복제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과정에서 이용하는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님 •생식 초기에 관한 연구, 인체 조직과 장기 복구, 질병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지닌 생명이므로 보호되어야 함 •복제 과정에서 수많은 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훼손할 수 있음

- 개체 복제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임 부부가 유전적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음 •복제 인간도 서로 다른 선택과 경험, 환경에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존엄성 훼손: 복제를 위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복제 인간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음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 위배: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인간이 복제된다면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 파괴될 수 있음 •인간의 고유성 위협: 복제된 인간은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으므로 자신의 고유성을 갖기 어려움 •가족 관계에 혼란 초래: 체세포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부모 자녀 관계인지 형제자매 관계인지 불분명함

(3)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생명 윤리 문제

- ① 유전자 치료의 의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세포 또는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
- ② 구분: 치료 대상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나뉨

자료와 친해지기 인간 복제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복제 인간이-아직은 가설적이지만-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혹은 안다고 믿고) 타인들 역시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안다는 (혹은 안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기와 타인의 이러한 선(先) 지식은 그가 '그 자신' 됨의 자발성을 마비시킨다. 세포를 증여해 준, 이미 알려져 있는-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원형은 모든 기대와 예언, 희망과 공포, 목표 설정, 비교, 성공과 실패 및 충족과 실망의 기준을 그의 세포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되어 가는 자가 서서히 구축해 가는 지식이 아니라 기존의 원형이 가지고 있던 완료된 지식에서 얻어 낸 것이다. 이러한 사이비 지식은 이른바 미리 설계된 인간 주체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도의 직접성,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 느끼는 삶의 놀라움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현 실적인 지식과 참된 진리가 아니라 사이비 지식과 거짓 진리일 뿐이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

요나스에 따르면, 복제를 통해 존재하게 된 인간은 무지의 보호 아래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만다. 그는 인간에게서 미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체세포 유전자 치료

- 의미: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특징: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므로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단 생명 의료 윤리 원칙에 의한 과학적·의학·윤리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④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 의미: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특징: 생식 세포에 영향을 주어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논거

찬성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 유전을 막아 다음 세대의 병을 예방할 수 있음 • 유전병을 퇴치하는 등 의학적으로 유용함 •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임 •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용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함 •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으로 위험함 •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음 •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그 혜택이 일부 사람에게 치중되어 분배 정의에 어긋날 수 있음

2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1)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

- ① 동물 실험의 의미: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
- ② 동물 실험의 실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화장품과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실험 방법 교육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음

③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거

찬성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동물의 지위는 차이가 있고,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여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음 • 동물 실험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의 대안이 없음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음 •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모의실험 등 대안적 방법이 존재함

(2)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쟁

- ① 동물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 유희를 위한 동물 활용, 동물 학대와 유기, 야생 동물의 생존권 위협 등
- ② 논쟁의 핵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 ③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아리스토텔레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데카르트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함 → 기계는 인식이 아니라 기관의 배치에 의해서만 움직임
칸트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남

④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

벤담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싱어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함
레건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님 →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부당함

자료와 친해지기 싱어의 동물 해방론

종 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중략)…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interests)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중략)… 만약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또한 의심해서는 안 된다. - 싱어, "동물 해방" -

싱어는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을 이익을 지니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이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우리가 인종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배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인류 종의 이익을 다른 종에 속한 동물의 이익보다 옹호하려는 종 차별주의 또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03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배아는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지닌 인격체, 즉 사람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같은 ‘될 가능성’이 배아가 현재 사람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아는 사람이 받는 도덕적 존중을 동일하게 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므로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더라도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을: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인격체에 두게 되면 신생아나 뇌사자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배아와 배아가 산출할 인간 개체 사이에는 유전적 동일성이 유지되며, 따라서 배아, 착상 후 배아, 성인으로서 인간 개체는 모두 인류 중(種)의 생명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배아는 인간 생명체의 범주에 속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① 갑은 배아가 현존하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잠재적 인격체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② 을은 배아가 인류 중(種)을 구성하는 생명체이므로 도덕적 지위와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배아는 도덕적 권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④ 갑과 을은 배아와 인격체 사이의 개체적 동일성에 근거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 ⑤ 갑과 을은 배아와 인격체 사이의 유전적 동일성에 근거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02

▶ 23058-003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자연은 결코 아무런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고통과 즐거움의 징표이며, 이것은 동물도 지닌다. 하지만 인간만이 동물 중에서 이성[말, logos]을 지니며,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지각을 지닌다.</p> <p>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소위 다른 존재자들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A -- 아니요 --> C{C} B -- 예 --> BBox[갑의 입장] C -- 예 --> CBox[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보기

- ㄱ. A: 동물은 인간의 가치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가?
- ㄴ. A: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 능력을 지닌 존재인가?
- ㄷ. B: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 ㄹ. C: 동물 확대는 도덕성에 유익한 인간의 자연적 소질의 계발을 훼손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3

▶ 23058-003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물은 인간과 달리 정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본능적으로 기어와 태엽의 배치에 따라 작동하는 시계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시계가 우리보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준다는 사실이 시계가 정신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을: 동물 중에는 믿음과 욕망, 지각과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감각, 감정과 함께 정서적 생활, 선호와 복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 할 능력을 지닌 것들이 있다. 이들은 삶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동물은 기관의 배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자동 기계이다.
- ㄴ. 갑: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기표현을 위해 언어와 추론 능력을 활용한다.
- ㄷ. 을: 자율적 행위와 책임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 ㄹ. 갑과 을: 동식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4

▶ 23058-003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는 성인처럼 권리를 갖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나 노인을 포함해 모든 인간은 도덕적 동물입니다. '가장자리 상황'은 권리를 누구에게는 부여하고 누구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며, 능력이 부족하면 권리를 철회해 버립니다. 그러나 권리는 예외 없이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에게 생기는 것이며, 인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도덕 판단 능력은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실행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어떤 장애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도덕 능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종(種)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된다거나 각 개인이 쇠락함에 따라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 ① 권리는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 ②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은 권리를 갖는다.
- ③ 인간의 권리는 지적인 능력의 상실과 함께 소멸한다.
- ④ 도덕성은 동물이 아닌 인간의 삶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다.
- ⑤ 동물은 도덕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는 도덕과 무관한 종(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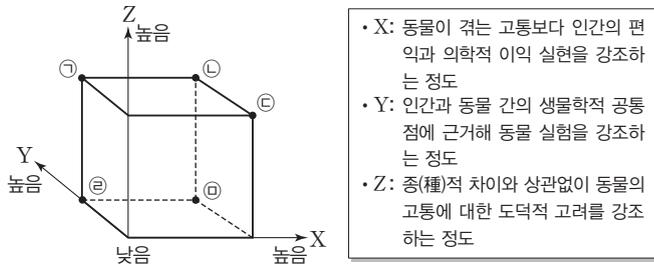
05

▶ 23058-0035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동물 실험은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는 주지 않을 고통을 동물에게 주는 관행일 뿐이다. 고통의 기능은 같은 것인데 인간의 파당적 관점에 따라 동물의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종(種)적 차이에 근거해 인간과 다른 종을 차별하는 것이다.

을: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하는 침팬지나 기니피그, 마우스는 인간처럼 척추를 갖고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고, 허파로 호흡을 한다. 따라서 이들 동물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와 효과는 인간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 준다. 즉 동물 실험은 인간의 질병 치료와 의학적 지식의 확장을 위해 중요하고 유익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6

▶ 23058-003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동물의 종을 위해 식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인간의 종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도 옳다.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적법하고, 사실상 이것은 신(神)의 명령에도 부합한다.

- ① 신의 피조물로서 동물은 인간과 달리 모든 가치로부터 배제되는가?
- ② 이성을 지니지 않은 피조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③ 동물은 선악의 관념을 지닐 수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에서 배제되는가?
- ④ 인간이 자연의 동식물을 인간의 선(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⑤ 음식이나 가죽을 획득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

07

▶ 23058-003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며, 그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을 갖는다고 말할 때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사례>

반려동물을 키우는 A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반려동물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화를 풀기 위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A는 자신의 반려동물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 ① 동물 학대는 신(神)의 피조물인 인간의 의무 위반임을 명심하세요.
- ②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명심하세요.
- ③ 동물 학대가 그 자체로서 선한 도덕적 선의지에 위배됨을 명심하세요.
- ④ 동물 학대는 자연법적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의 위반임을 명심하세요.
- ⑤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효용과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명심하세요.

08

▶ 23058-0038

다음 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환자가 겪고 있거나 겪을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다. 의사는 종종 환자가 바라는 것을 무시하고, 환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환자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즉각적 소망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환자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 의사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러한 주장이 의사가 환자보다 모든 경우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의미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것은 의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도덕과 관련된 영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의사는 환자에 대해 해악 금지와 선행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V	V		V	
의사의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는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				V	V	V
의사의 부권주의적 결정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V		V		V
의사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09

▶ 23058-003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해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인간의 목적에 맞도록 사물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연구자들은 인간 육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물을 해부하고 실험하며, 이 과정에서 독약도 사용한다. 그들은 동물의 번식 능력을 강화하거나 불임이 되게 하기도 하고, 동물의 피부색과 모양, 행동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도 하며,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을 교배해 새로운 종의 동물을 만들어 내는 등 '자연의 해석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 동물 실험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 ㉠ </div> </div> 

보기

- ㄱ. 동물 실험으로 종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경우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 ㄴ. 동물 실험이 인간 삶의 효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ㄷ. 동물 실험으로 얻은 지식을 인간의 육체를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 ㄹ. 동물 실험으로 동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 23058-0040

다음 불교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육도(六道)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데도, 죽여서 먹는 자는 곧 나의 부모를 먹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죽여서 먹는 것이니라. 모든 흙과 물은 나의 옛 몸둥이요,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늘 방생(放生)해야 하고, 세세생생(世世生生) 생명을 받았거든 방생이 상주하는 법이 되도록 다른 사람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고기를 먹는 자라면 마땅히 알라. 이는 곧 중생의 큰 원수이며, 나의 성스러운 종자[聖種]를 끊는 것이니라. 대혜(大慧)여, 만일 나의 제자가 내가 말한 바를 듣고도 살펴보지 않고, 고기를 먹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는 곧 나의 제자가 아니며, 나도 더 이상 그의 스승이 아니다. 그러니 나와 한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일체 모든 고기를 마땅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숨을 보호하고 야끼는 것은 사람이나 축생(畜生)이나 다르지 않느니라.

- ① 동물과 인간은 평등하므로 동물을 음식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 ②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 ③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고 죽이려는 것을 본다면 보호해야 한다.
- ④ 인간은 불살생의 계율을 닦아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인간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듯 동물도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11

▶ 23058-004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유전 공학은 인류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 우리가 욕구하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악(惡)이고 그것의 치료와 극복이 소극적 선(善)이라면, 인간의 자연적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 공학은 적극적 의미의 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을: 유전 공학의 발전이 인류의 질병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전 공학 연구가 질병 치료의 목적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유전 공학 연구의 목적을 질병 치료가 아닌 자질 강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유전 공학 연구가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유전 공학 연구가 인류의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과 을은 유전 공학 연구가 인류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기회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 23058-004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전학적 간섭이라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모들이 시험관 속의 배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물화하는 태도가 출생 후에도 부모와 프로그램된 인격체 사이의 사물화하는 관계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우생학적 행위와 불임 극복을 위한 복제 시술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자식들, 또는 복제 인간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작용의 상대'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물학적 출발 조건이 자연 발생적 우연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의식을 잃어버린 프로그램된 인격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만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정신적인 조건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사회화의 과정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거기서 전개되는 교육적 힘의 매체는 자라고 있는 해당 인격체도 동의할 수 있는 내적 근거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호 이해의 과정과 결정이다.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유전적 특질을 고정시킬 경우,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부정당하게 된다.

- ① 프로그램된 인격체는 인격체가 지닌 유일성과 불가침성을 훼손당하게 된다.
 ② 프로그램된 인격체는 자기 삶에 대한 고유한 저자로서 자격을 부정당하게 된다.
 ③ 부모는 미래의 인격체의 생물학적 출발 조건에 대해 자의적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④ 프로그램된 인격체는 자신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인격체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⑤ 복제 시술이 일반화되면 복제 인간은 부모로부터 상호 작용의 상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1 사랑과 성의 관계

(1) 사랑의 의미와 가치

- ① 사랑의 의미: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 ② 사랑의 가치
 -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안내함
 -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함
- ③ 사랑의 구성 요소(프롬)

보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돌보는 것
책임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존경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
이해(지식)	사랑은 자신의 관점을 초월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

(2) 성의 의미와 가치

① 성의 의미

생물학적 성(sex)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성 개념
사회·문화적 성(gender)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성 개념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 개념

②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가치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쾌락적 가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치를 지님
인격적 가치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 주는 가치를 지님

(3)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보수주의	•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 •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함 →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 정당하다고 봄
자유주의	•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 •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함
중도주의	• 사랑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 • 사랑을 동반한 성적 자유를 인정하고 사랑을 통해 성적 자유와 성에 대한 책임을 절충함

(4)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① 성차별

의미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
원인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문화적으로 규정된 후 이를 다르게 할 때 발생함
문제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여 국가 차원의 인적 자원 낭비를 초래함
극복 방법	양성평등의 관점을 갖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② 성의 자기 결정권

의미	•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
올바르지 못한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인한 윤리적 문제	• 타인이 갖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치 않는 임신으로 무분별한 인공 임신 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해결 방안	서로의 인격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성(性)에 대한 칸트의 입장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性愛)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양자 각각은 자연목적이다. …(중략)… 법 이론에서 증명된 바는, 인간은 두 인격이 교호(交互)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 없이, 이러한 쾌락을 즐기 위하여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러한 향락과 관련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한낱 실추가 아니라) 모독이 되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러한 향락에 대한 충동을 육체적 쾌락이라고 (단적으로 환락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쾌락은 부정(不貞)이라 일컫고,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충동과 관련된 덕은 정숙(貞淑)이라고 부르며, 무릇 이 정숙은 응당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표상된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칸트는 성적 방종이 종의 보존이라는 자연목적은 거스르고 타인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성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성적 방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성 상품화

- 의미: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사고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
- 사례: 성매매,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 등
- 찬반 입장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음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의 의미를 훼손함 •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성 상품화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임 •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

2 결혼과 가족의 윤리

(1) 결혼의 윤리적 의미와 부부간의 윤리

① 결혼의 의미

- 사랑의 결실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
-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
- 사랑을 바탕으로 삶 전체를 공동으로 영위하겠다는 약속 → 백년 가약

② 부부 윤리

전통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존중할 것을 강조함 • 음양론에 근거한 부부 윤리: 자연의 음(陰)과 양(陽)의 관계처럼 부부는 상호 보완적임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상경(夫婦相敬), 상경여빈(相敬如賓), 정조의 윤리를 강조함
오늘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함 •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지양함 → 양성평등을 강조함

③ 부부간에 요구되는 윤리: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신의를 지켜야 함

(2) 가족의 가치와 가족 윤리

① 가족의 의미: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② 가족의 가치

- 정서적 안정: 가족 구성원과 함께 긴장을 풀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사회화: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습득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줌
- 건강한 사회의 토대: 가족의 화목과 안정은 사회 전체의 화목과 안정으로 이어짐

③ 가족 해체 현상

의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
원인	가족이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서로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음 → 가족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상호 작용이나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④ 바람직한 가족 윤리

전통 사회의 가족 윤리	부자유친(父子有親),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윤리를 강조함
부모 자녀 간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함: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효로써 섬겨야 함 •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 •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함
형제자매 간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함 • 형우제공(兄友弟恭)을 실천해야 함 →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됨

자료와 친해지기 유교의 가족 윤리

-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 해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하리오.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뚱이를 가졌다 해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오. 사람이 능히 항상 이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
- 남편은 화려한 모습을 가져서 의리로서 아내에게 도리를 다해야 하고, 아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받아서 일을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예와 공경한 마음을 잃지 않은 뒤에야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몸뚱이를 물려받은 터이니 둘은 모두 한 몸뚱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그와 나는 간격이 있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의복이 있고 없는 것을 마땅히 모두 함께해야 할 것이다. …(중략)… 지금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자기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이, "격몽요결" -

유교에서는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한다. 부모는 자녀를 자애로써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형제자매는 동기간(同氣間)으로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01

▶ 23058-0043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귀족이 아니라 평민으로 태어난 것 이상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는 불행한 결과를 낳는 일이 된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즉 특정한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자극을 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현대의 사회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본법을 유린하는 아주 드문 사례이다. 여성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지닌 능력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보기

- ㄱ. 여성과 남성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유용성 증진에 기여한다.
- 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측은 관습과 편견보다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 ㄷ. 여성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억압은 인류 전체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 ㄹ.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믿음은 교육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2

▶ 23058-0044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준다'는 말과 관련해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적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매우 큰 환희를 경험한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등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

- ①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인가?
- ② 사랑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행위인가?
- ③ 사랑은 상대와의 합일이 아닌 호혜적 상호 이익을 통해 완성되는가?
- ④ 사랑은 자신의 관점을 초월해 상대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하는가?
- ⑤ 상대에 대한 존경 없는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배로 타락할 수 있는가?

03

▶ 23058-004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성(性)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즉 사랑을 중시해야 한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성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성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p> <p>을: 성의 도덕적 기준에서 혼인과 출산 또는 사랑을 배제해야 한다. 혼인과 출산, 사랑의 규제 아래에 있는 성이 더 좋은 성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ㄴ. B: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 ㄷ. B: 도덕적 성의 조건으로 출산과 양육 목적의 사회적 제약은 불필요하다.
- ㄹ. C: 성적 행위에서 당사자 간의 사랑을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 23058-0046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내외의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상하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
- 혼례(婚禮)는 서로 다른 두 성(姓)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어 가는 일이다. 혼례의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보기

- ㄱ.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이다.
- 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
- ㄷ. 부부 관계에서는 분별을 없애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 ㄹ. 부부 관계는 천륜(天倫)에 의한 혈연관계이므로 상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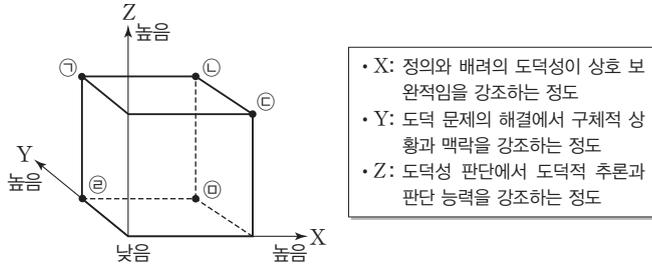
05

▶ 23058-0047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도덕성 발달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선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기초해 행위 한다. 이러한 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논리적 일관성과 보편성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평등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리이다.

을: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의 문제로 보는 여성들에게 도덕성 발달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우리가 내세우는 보살핌의 도덕관에 깔린 논리는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의 논리로서, 정의의 도덕관에 전제된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와 대조를 이룬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6

▶ 23058-004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윤리성의 원리와 정반대이다. 행위의 모든 도덕성은 그 행위가 만들어 낼 것에 대한 애호와 애착으로부터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리고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그 행위의 필연성에 두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 의해 이미 선호된 또는 선호될 수 있는 수행 방식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A는 자기가 잘하는 재주를 살려 '먹방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A는 여기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결합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

- ① 성 상품화가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② 성 상품화가 콘텐츠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해 보세요.
- ③ 성 상품화가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④ 성 상품화가 자신의 도덕적 인격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 ⑤ 성 상품화가 자연적 경향성과 의무에 맞는 행위라면 그렇게 하세요.

07

▶ 23058-004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어떤 주체도 단번에 자발적으로 비본질적인 객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를 ‘타자’로 정하는 ‘타자’가 ‘주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주체’로 정립하는 ‘주체’가 ‘타자’를 ‘타자’로 세운다. 그러나 타자가 주체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면 그 타자는 그런 상대의 관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에게 이와 같은 복종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자기 실존의 회복과 여성의 자기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경제적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여성성이란 하나의 속임수이다. 인간 발달에서 자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는 여성이 본래 남성에 예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성이 본래 남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① 여성다움의 본질은 신(神)에 의해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존재한다.
- ②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의 능력보다 우월하며 주체적인 존재이다.
- ③ 여성은 남성이 정의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
- ④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남녀 사이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 ⑤ 여성은 사회적 조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물학적 운명의 희생자이다.

08

▶ 23058-0050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성(性)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자 적습니다. 성적 활동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유전적 적합성의 증대로 이어지는데, 성기를 달리 생식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적 활동이 동반하는 쾌락은 하나의 가치이며, 그것은 인간의 중요한 목적에 기여하는 가치이자, 그 자체로도 가치를 지닙니다. 성적 활동은 상대방과 애정적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쾌락을 동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성적 욕구는 신체적 교접(交接) 욕구를 넘어 타인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이 없는 성은 그 자체로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성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인간다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략>

보기

- ㄱ. 성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인격적 성숙을 가능하게 해 준다.
- ㄴ. 성은 생식에 의한 유전적 적합성을 증대하여 종(種)의 보존에 기여한다.
- ㄷ. 성은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ㄹ. 성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하며 사랑이 없는 성은 그 자체로 옳지 못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

1. 직업의 의미

(1) 직업의 의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경제적 재화를 취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

(2) 직업의 어원

① 동양: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직(職)’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뜻하는 ‘업(業)’이 합쳐진 말

② 서양: ‘프로페션(profession)’은 일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말이고, ‘보케이션(vocation)’이나 ‘콜링(calling)’은 신의 부르심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담은 말

(3) 직업의 기능

① 생계유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함

② 자아실현: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과 보람을 갖게 함

③ 사회 참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

2. 동서양의 직업관

(1) 동양의 직업관

공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강조함
맹자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恒産(恒産))이 백성의 도덕적 삶(恒心(恒心))의 기반이 된다고 보며,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
순자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며,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禮)에 따를 것을 강조함

(2) 서양의 직업관

플라톤	각자 타고난 성향과 국가의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함
-----	--

중세 그리스도교	노동을 원죄에 대한 벌로 신이 부과한 것으로 보고, 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칼뱅	직업을 신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함
마르크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함

3. 직업과 행복

(1) 직업 선택의 중요성: 직업은 단순히 부의 획득과 과시의 수단이나 행복한 삶의 통로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음

(2) 직업 생활과 행복: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서로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함

2 직업 윤리와 청림

1. 직업 윤리의 의미

(1) 직업 윤리의 의미: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과 규범

(2) 직업 윤리의 필요성

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함

② 직업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음

(3) 직업 윤리의 일반성과 특수성

일반성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보편적인 윤리 규범과 통합 ㉠ 책임 의식, 성실성
특수성	각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전문 직종의 영향력이 커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면서 강조됨

자료와 친해지기 순자의 예(禮)와 직업관

-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분별(分)이 없다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곤궁해진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고, 분별이 있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과 이익이 된다. 옛 임금들은 사람들 사이의 분별을 마련하여 차등을 두었다.
-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금과 재상과 신하들과 여러 관리들은 각각 그의 직분으로 들은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들어 보지 않은 직분 이외의 일은 들으려 애쓰지 않는다. 각각 그의 직분으로 본 일들을 삼가 힘쓰게 되므로, 그가 본 일이 없는 직분 이외의 일은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이 들은 일들과 본 일들이 진실로 그들 직분에 들어맞기 때문에 비록 으스스하고 외진 곳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직분을 공격히 지키고 제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 모두가 그들의 임금에게 감화를 받는다. 이것이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징조이다. - 순자, “순자” -

순자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예의를 바탕으로 하는 분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예에 따라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손상된다고 보았다. 또한 순자는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임금은 덕(德)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임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2. 다양한 직업 윤리

(1)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① 기업: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로, 기업가와 근로자로 구성됨

② 기업의 책임

소극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함 이윤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함
적극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사회의 핵심 기관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지원과 인류애를 구현해야 함

③ 기업가 윤리

-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함
- 근로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익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함
-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함

④ 근로자 윤리

-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동료 근로자와 연대 의식을 형성해야 함
- 기업가와 맺은 근로 계약을 지키고 기업가와 협력을 추구해야 함

⑤ 기업가와 근로자의 상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개인 윤리적 차원	기업가는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대립 의식을 지양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함
사회 윤리적 차원	정부는 기업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

(2) 전문직과 공직자 윤리

① 전문직의 특징과 전문직 윤리

- 전문직의 특징

전문성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
독점성·자율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전문직 윤리: 전문직은 직업적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 의식이 요구됨

② 공직자의 특징과 공직자 윤리

- 공직자의 특징: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공권력을 지니며,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큼
- 공직자 윤리

선공후사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청렴 정신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지녀야 함
공정성	직무를 수행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내부 고발 제도 확립, 시민 단체 감시 활동,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과 공직 기강 확립

3.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

(1) 부정부패의 문제

① 부정부패의 의미: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

② 부정부패의 문제점

- 개인적 측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게 되거나 올바른 시민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움
- 사회적 측면: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국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사회 통합이 어려워짐

(2) 청렴한 사회 실현

① 청렴의 의미: 행동이 맑고[淸(淸)] 염치를 알아[廉(廉)]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②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제도적 보완: 내부 공익 신고 제도 운영, 부패 방지법 제정,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등과 같은 업무 처리의 투명성 보장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사회적 자본의 확충: 청렴한 사회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상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됨

자료와 친해지기 사회적 자본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다. 개인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와 훈련이라는 의미의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스크루드라이버(물리적 자본) 혹은 대학 교육(인적 자본)이 (개인적·집단적)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접촉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품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퍼트남, "나 홀로 불링" -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규범과 연대,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개인과 사회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05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분계(分界)가 없다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곤궁해진다. 그러므로 분계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고, 분계가 있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과 이익이 된다. 그런데 임금이란 이 분계를 관할하는 중추가 되는 사람이다. 만 가지 변화를 다스리고 만물을 잘 이용하며 만백성을 먹여 살리고 온 천하를 모두 제어하는 데에는 어진 사람[仁人]의 훌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 예의[禮]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 주고,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의 차등이 있게 하며,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맡은 일을 틀림없이 잘 해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익을 가져오고, 그 이익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충분할 것이며, 남는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때마다 저장하게 될 것이다.

보기

- ㄱ. 어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백성들의 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 ㄴ. 나라를 풍족하게 하려면 사람들 사이의 분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ㄷ. 백성들은 자신이 맡은 직분은 물론 그 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통달해야 한다.
- ㄹ. 임금은 예를 통해 백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2

▶ 23058-005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가 낡은 분업 체계를 기술적으로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공장에서 관습적으로 존속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욱 가증스러운 형태의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서 자본에 의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고 고정된다. 전에는 동일한 도구를 다루는 일이 평생의 전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동일한 기계를 다루는 일이 평생의 전문이 된다. 노동자를 어릴 때부터 어느 한 기계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가 악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장 전체에 대한, 나아가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절망적인 종속이 완성된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사회적 생산 과정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와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를 구별해야 한다.

-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적 분업 노동은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으로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 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자발적인 노동을 할 수 없다.

03

▶ 23058-005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어두운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물과 불을 구하면 그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물과 불은 지극히 넉넉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콩과 곡식이 물과 불처럼 흔하게 되니 백성들이 어찌 어질지 못하겠는가? 백성들은 뗏목이 살 수 있는 생업이 있으면 그로 인해 뗏목한 마음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대인(大人)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小人)이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다. 또한 한 사람의 몸에는 각종 장인들이 만든 물품이 필요한데, 만약 모든 물품을 일일이 각자가 만들어 쓰게 한다면,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노동을 한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통치당하고, 통치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양받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보기

- ㄱ. 통치자가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도(王道)의 시작이다.
- ㄴ. 통치자는 분업을 통한 상호 부조의 원칙이 잘 실현되도록 통치해야 한다.
- ㄷ.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맡은 일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 ㄹ. 통치자는 육체노동자가 궁극적으로 향심이 아닌 향산을 지니도록 다스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 23058-005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은 우리를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고, 보조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서로 다른 계층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한다.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① 갑: 생산자 계층의 자녀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계층이 되는 경우는 없다.
- ② 갑: 각자가 정해진 역할을 맡는 것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 ③ 을: 자신의 직업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 ④ 을: 금욕적인 노동의 결과에 수반되는 부의 축적과 신의 소명 실현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공동체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절제의 덕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05

▶ 23058-0055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오늘은 벼슬살이할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무릇 신하는 낮은 벼슬자리에 있어도 늘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해야 한다. 언관(言官)에 있을 때는 날마다 적절하게 바른 의견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밝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야 하며, 못된 짓을 하는 관리들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 항상 공정한 마음과 지혜를 갖춰 탐욕스럽고 비루하고 음탕한 일에는 대책을 세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군이나 현의 지방 관아를 맡을 때는 어질고 자애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청렴결백하도록 힘써서 아전이나 백성이 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나라에 난리가 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켜야 한다. ... (후략)

보기

- ㄱ. 공직자는 자신이나 자기 편에게만 유리하게 직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ㄴ. 공직자는 부정부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굳은 마음과 지혜를 지녀야 한다.
- ㄷ. 공직자는 직무상의 본분 측면에서 백성과 항상 동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ㄹ. 공직자는 자신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청렴결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 23058-005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기업가의 영리 활동도 소명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노동자와 민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정당화하였다. 어쨌거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직업으로서 노동을 충실히 이행해 천국에 속하고자 하는 개인의 투철한 욕구와 교회 규율이 요청한 엄격한 금욕의 실천이 결합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을: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이고, 산 노동에 대한 죽은 노동의 지배이며,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이다. 노동자에 대한 지배 수단이 된 상품은 자본 그 자체의 지배 도구로서 생산 과정의 결과이자 산물일 뿐이다. 즉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보기

- ㄱ. 갑: 프로테스탄트는 직업 노동의 열매로서 획득하는 부를 신의 축복으로 여긴다.
- ㄴ. 갑: 프로테스탄트에게 노동은 신의 소명의 실천일 뿐 생계의 충족 수단이 될 수 없다.
- ㄷ.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만든 생산물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된다.
- ㄹ. 갑과 을: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원천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노동 착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

▶ 23058-0057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일반적으로 기업 윤리와 연관된 활동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 추구 과정 이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하는 기업의 노력을 의미한다. 아마도 앞으로 기업 경영자들은 점점 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의 공공 의식이 높아서라기보다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책임 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사업상의 위험에 덜 노출될 것이며, 헌신적인 직원과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더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법 제정자와 협력 업체들로부터도 좋은 기업으로 인식될 것이다.

- ①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기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 ②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기업은 공익 증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④ 기업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 ⑤ 기업 경영자의 공공 의식이 높아야만 기업은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08

▶ 23058-005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고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 청렴은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다만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놓으면서도 실속이 없으면 말할 거리조차 못 된다.

을: 수호자들은 집, 토지, 기타 재산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급여는 그들의 식량이 되고, 그들은 이것을 다른 국민에게서 받으므로 사적 비용이 필요 없다.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으므로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수호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① 갑: 공직자는 청렴으로 인(仁)의 도(道)를 이루려는 큰 욕심[大貪]을 지녀야 한다.
- ② 갑: 공직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유 재산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
- ③ 을: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통해 국민들의 모든 욕망 추구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을: 공직자는 국가의 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라면 다른 계층의 일에도 종사하게 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공직자는 모든 국민이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만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09

▶ 23058-005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고, 즉 가족, 지인과 비공식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시민 협의체, 종교 기관,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 관계망은 건강, 행복, 교육적 성공, 경제적 성공, 공공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킨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은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정치적·경제적 거래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면 기회주의적 처신과 부정행위를 할 동기가 줄어든다. 바로 이것이 대규모 사회에서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핵심적 토대에 해당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개인과 사회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V	V		V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장은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V			V	V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이 된다.				V	V	V
사회적 자본은 시민 상호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 23058-006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법률 제도와는 별도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이는 본래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 고위 공직자, 정치 지도자, 전문직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 덕목은 자율성, 강한 책임 의식, 도덕성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이겨 내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덕목이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강화됩니다.



보기

- ㄱ.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계층 간 화합과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정치 지도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ㄷ.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로 인식된다.
- ㄹ.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 사회 정의의 의미

(1)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① 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

-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함
-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독자적 원리에 따라 움직임

②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구분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주안점	개인의 양심, 윤리 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에 중점을 둠	사회 구조, 제도, 정책 등 사회의 도덕성에 중점을 둠
문제 원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실천 의지의 결여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문제 해결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실천 의지, 도덕적 습관 함양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

③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모두 필요함

④ 니부어의 사회 윤리에 대한 관점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
-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음
-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사회 정의

① 사회 정의의 의미: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② 사회 정의의 종류

분배적 정의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교정적 정의	위법과 불공정함을 바로잡아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

2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1) 분배의 기준

구분	장점	단점
절대적 평등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음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
필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능력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음	우연적·선천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평가 기준의 마련이 어려움
업적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쉽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렵고, 과열 경쟁으로 부정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음

(2)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관점

① 아리스토텔레스

- 동등한 구성원이라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구성원이라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해야 함
- 각자에게 주어야 할 그의 몫이 그가 받아야 할 몫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중용의 상태가 분배적 정의임

② 마르크스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함
-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③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분배의 결과는 공정하다고 봄

자료와 친해지기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도 부정의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이러한 우연성을 다소간 한정되고 특전을 가진 계층에 속하게 되는 귀족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임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회 체제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변적인 질서가 아니며 인간 행위의 한 양식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두 원칙은 운명의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방식이며 다른 점에서 불완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정의롭다.

- 롤스, "정의론" -

롤스는 천부적 자질이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임의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됨
- 정의의 두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됨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함

-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함

④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님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함

취득의 원칙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음
이전(양도)의 원칙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음
교정(시정)의 원칙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함

⑤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됨
- 한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한 것이 다른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됨
-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함

(3)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①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우대 정책의 의미: 특정 집단에 대한 역사적·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 • 사회 갈등 완화, 사회 전체 이익 극대화 • 자연적·사회적 운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 • 업적주의에 위배됨 •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보상 간 불일치 문제 • 역차별로 새로운 사회 갈등 유발

②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부유세의 의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
- 부유세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자들에게 대한 역차별 발생

3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1) 교정적 정의

- ① 교정적 정의의 의미: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② 처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응보주의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 • 전과자의 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음
공리주의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 •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

(2) 사형 제도에 대한 관점

칸트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살인자에 대해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루소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는 정당함
베카리아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부합하며, 자신의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 계약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음

자료와 친해지기 사형 제도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칸트, "윤리이상학" -
-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킨다.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 노역형의 상대적 이점이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형자는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 (중략) ... 구경꾼은 불행한 수형자의 무감각해진 마음 대신 자신의 현재 감수성으로 사태를 판단한다. 구경꾼에게 수형자의 모든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칸트는 살인을 했거나 그러한 범행의 공범자들은 모두 공적 법칙(법률)에 의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06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범한 잔인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은 잔인성에 대해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인간의 집단적 행동의 위선이 자기 정당화로써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 일반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로써도 그 위선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인간 정신의 비극이며, 인간의 집단적 생활을 개인적인 이상에 일치시킬 수 없음을 상징한다.
-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고 이러한 충성심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된다면, 개인의 높은 도덕적 이상이 필요해진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상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은 얼마든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집단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야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기적 태도를 버린 지도자는 집단의 사기를 크게 고양할 수 있다.

- ① 개인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항상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비합리적인 수단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⑤ 집단의 비정상적인 이기심이 이에 맞선 타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될 수는 없다.

02

▶ 23058-006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며,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보기

- ㄱ.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 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다.
- ㄷ.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한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 ㄹ.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 선택에 필요한 모든 일반적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03

▶ 23058-006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습니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이라 생각됩니다. 저녁의 별도, 새벽의 별도 그 정의만큼 경탄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에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으며, 특수한 것에는 분배와 관련된 것과 교정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보기

- ㄱ.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이中庸(中庸)의 상태를 이룬 것이다.
- ㄴ. 공동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하학적 비례에 근거하여 보상해야 한다.
- ㄷ. 각자의 공적(功績)에 상응하여 명예나 권력을 분배하는 것은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 ㄹ.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기꺼이 정의의 덕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 23058-006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도 부정의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을: 천부적 자질에 대한 인식이 원초적 입장에서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천부적 자질을 몰라야 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개인들은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① 갑: 차등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호혜성을 표현하는 정의의 원칙이다.
- ② 갑: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③ 을: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것들에 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 ④ 을: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도 그 자체로 부정의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정당화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분배 정의의 원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05

▶ 23058-0065

을 사상가가 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 경향성과 성향을 주었다. 만약 인간이 이성이나 지성을 갖지 않았더라면 경향성이 나 성향에 의해 동물과 마찬가지로 지배받았을 것이다.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무는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손상하게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때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명하는 바는, '너의 욕구와 본능과 열정을 감독하라.', '너의 이성과 지성이 도덕성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도록 감독하라.'이다.

을: 인간에게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이성의 능력은 사회의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인간은 자연적 충동에 의하여 자기를 넘어선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피하게 된다. 또한 연민이라는 충동에 기초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의 사회적 충동은 선한 것이다.

- ① 개인의 선의지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의 이성은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이성의 발전은 개인의 도덕적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집단의 구조나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06

▶ 23058-006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우리의 학교는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된 교실의 모습을 지향해 왔다. 학생들이 지리적 배경, 경제적 계층, 종교, 문화, 인종 등이 다양한 급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자질을 갖출 수 있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학교가 인종, 계급, 직업, 지위에 따라서 한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정의와 조화 모두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학생도 과거의 성취나 능력, 타고난 덕으로 인해 대학 입학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선택한 다양한 목표에 이바지할 가능성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보기

- ㄱ. 소수자 우대 정책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좋은 시민을 길러 내는 데 도움을 준다.
- ㄴ.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한 학생 선발은 다양한 학생들 간의 조화와 공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 ㄷ. 소수자 우대 정책은 학교가 고른 여러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ㄹ.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인종, 계급에 따라 한 국가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부정적인 행위임을 확인시켜 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8-006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을: 소유 권리론은 한 집합의 소유 상태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명시한다. 이 과정의 기저를 구성하는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들은 이 과정을 주제로 하므로 그 자체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종국 상태적 원리라기보다는 과정적 원리들이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정의의 원칙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할 수 있는가?
- ㄴ. B: 한 사회 체제의 정의 여부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는가?
- ㄷ. C: 개인이 지닌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만으로 개인의 소유 권리가 보장되는가?
- ㄹ. C: 도덕적 상점(賞點)과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전형적인 분배 상태를 명시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 23058-0068

을 사상가가 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공산주의 사회의 분배 양식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에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적용된다.
 을: 다원적 평등 체제는 전제와 정반대가 된다.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분배적 정의의 원칙은 가상의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사회적 가치의 분배는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모든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위한 단일한 기준은 자유 교환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적 소유 철폐에 있음을 간과한다.
- ⑤ 특정 영역 밖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09

▶ 23058-006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형벌을 면하게 하거나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하나의 정의를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을: 형벌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다른 일반인 속에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해서이다. 사형이 그 고통을 한순간에 집결시키는 것인 반면, 노역형의 고통은 그의 전 생애에 분산된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도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와 인도주의적 동정심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ㄴ. B: 범죄자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을 통해 고통을 부과받을 수 있다.
- ㄷ. B: 형벌은 공적 정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에 의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ㄹ. C: 형벌의 지속도가 아닌 일시적 강도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준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0

▶ 23058-007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갑: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는 형벌에 대한 요구를 창출한다. 형벌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범법자에게는 교정으로 작용하고 범법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본보기로 작용한다. 모든 법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p> <p>을: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하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p>

보기

- ㄱ. 갑: 형벌은 위법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
- ㄴ. 갑: 공리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쾌락보다 고통이 더 큰 형벌은 채택될 수 없다.
- ㄷ. 을: 사회 계약은 시민들의 생명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 ㄹ. 갑과 을: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회 계약에 따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1

▶ 23058-007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어야 할 법률이 대부분 소수자의 욕망의 단순한 도구 이든가, 우발적·일시적 필요로부터 생겨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인간의 활동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유일 최고의 목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현명한 탐구자들에 의해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는 결코 없었다.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자신이 가진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각자는 가능한 최소의 부분만을 공적 공탁물로 내놓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권력 남용이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탁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법률에 순종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V	V		V	
잔혹한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비례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		V			V	V
중신 노역형은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V	V		V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구실로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서는 형벌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 23058-007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형은 근원적인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 시민 중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살해했다면, 살인자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변은 모두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누구도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가 의욕한 것이 범죄자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다. 또한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형벌 받을 만한 일을 발견하는 일도 범죄자에게 위임되어야 하고, 범죄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궤변의 착오의 주요점은 동일한 인격 안에 법의 수행과 법의 판정이 합일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데에 있다.

- ① 살인자는 타고난 자유 의지를 상실한 행위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 ②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준다.
- ③ 응보에 의한 형벌 집행이 시민의 행복과 이익 증진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다.
- ④ 사회 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⑤ 범죄자를 보복법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1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1. 국가 권위의 정당성

(1) 국가 권위의 의미와 특징

의미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삶 전체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함 •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됨

(2)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국가와 시민은 상호 의존적 관계임

- ① 시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②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님

(3)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 •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임
플라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조화를 이룰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됨 •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임

아리스토텔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국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 •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함
사회 계약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된 것임 • 국가를 전제로 할 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공리주의	국가의 권위를 따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

2.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1) 동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공자, 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함 •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恒産[恒産])되어 도덕적인 삶(恒心[恒心])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목자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천하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함
한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함 •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함
정약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해결해 주어야 함 • 애민(愛民) 정신으로 백성을 돌보고 노약자나 빈자를 구제해 주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국가의 기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입장

-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이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다시 말해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것-행복-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이다. …(중략)… 여러 마을로부터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는 국가인데, 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전적인 자족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중략)…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운 때문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국가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 나는 인간이 다음 지점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의 저항력이,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때 이 자연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인류는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다만 존재하는 힘을 합하고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응집을 통해 여러 힘을 모아 저항력을 이겨 내고, 하나의 동력으로 힘을 작동시켜 일치협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중략)…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공동체처럼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자급자족적인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라고 보았다. 한편,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결합체인 공적 인격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았다.

(2) 서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홉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함
로크	•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함 •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함
루소	선한 본성을 지닌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함
밀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롤스	•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게 해야 함

2 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1. 민주 시민과 민본주의

(1)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민주 시민의 의미: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
- ② 민주 시민의 권리
 -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
 - 국가에 대해 생명, 재산, 인권 등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
- ③ 민주 시민의 의무: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국방·납세·교육의 의무, 정치 참여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함

- ④ 사회 계약론의 시민: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음

(2) 동양 민본주의(民本主義)의 백성

- ① 민본주의의 의미: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근본을 탄탄히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사상으로, 군주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함
- ② 민본주의의 백성: 군주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군주가 부여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따라야 함
- ③ 맹자: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易姓革命)이 가능하다고 봄

2.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1)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

- 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
- ② 시민 참여의 필요성: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2) 민주 시민의 참여 방법

- ① 시민 참여 분야: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평가 등 정부와 사회의 모든 활동
- ② 시민 참여 방법: 공청회,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국민 참여 재판, 선거 등

자료와 친해지기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 비교

• 공동 권력은 그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방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공동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 (중략) ... 사람들의 모든 인격을 떠맡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은 만인 상호의 신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주권자와 어느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 측에서 신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중략) ... 주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는 본질적이며 분리가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주권자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양도될 수 없다. - 홉스, "리바이어던" -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 (중략) ...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 (중략) ...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약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 로크, "통치론" -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주권자로서 통치자는 자신과 분리할 수도 없고 또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며, 주권은 계약의 주체, 곧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국가에 신탁으로 맡겨진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로크는 국가 권력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권 등으로 분할된다고 주장하였다.

3. 시민 불복종

(1) 준법의 의무

- ① 준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준법의 한계: 정의롭지 못한 법의 준수 문제 등장, 부정적인 법의 시정을 위한 노력과 시민 불복종의 필요성 등장

(2) 시민 불복종의 의미

①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특징

의미	부정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특징	부정적인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함

②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연원

- 자연법사상: 실정법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자연법을 위배하는 실정법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뉴른베르크 재판: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함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소로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함 •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임 •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함
간디	•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은 정당함 •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

롤스	•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근거가 되어야 함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적인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되어야 함
싱어	•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함 • 시민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드워킨	• 헌법이 정치 도덕의 근본을 형성하므로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헌법 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음

(4)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

최후의 수단	부정적인 법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여야 함
비폭력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
공동선 추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함
공개성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처벌 감수	시민 불복종이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함

(5) 시민 불복종의 한계

- ①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준법 의식이 약화되고 국가와 사회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음
- ② 시민 불복종의 주체인 일부 시민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
- ③ 시민 불복종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적인 정도에 달려 있다. …(중략)…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롤스, "정의론" -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중략)…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롤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부정적인 법이나 정책이라도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따라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법과 정책의 부정적인 정도에 달려 있으며,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 즉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의한 법을 변혁하기 위해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따져 봐야 하며,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07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덕(德)으로 정치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백성들을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을: 법(法)과 술(術)을 버려두고 임의대로 통치하면 요임금과 같은 성왕(聖王)도 천하는 고사하고 한 나라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군주라도 법과 술을 잘 사용한다면 하나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랑이 많으면 법이 서지 않고 위엄이 적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범한다. 그런 까닭에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 ① 갑: 통치자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수양한 후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을: 통치자는 올바른 다스림을 위해 신하를 조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④ 을: 통치자는 신상필벌(信賞必罰)보다는 인(仁)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⑤ 갑과 을: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02

▶ 23058-0074

다음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된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 없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신(人身)과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향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즉 사람들은 상호 간에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다. 따라서 공동체가 사용하는 물리력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V	V		V	
국가의 통치 권한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V	V	V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V		V		V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03

▶ 23058-0075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하늘[天]이 그에게 천하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그로 하여금 일을 주재하게 하자 모든 일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이 그를 편안해했으니 이는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왕도(王道)를 실현하기 위해 왕은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인의(仁義)만을 말해야 한다.
 을: 성왕(聖王)은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 행해야 한다. 하늘이 바라는 것이면 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이면 그만둔다.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두루 사랑[兼相愛]하며 서로 이롭게 하는 것[交相利]을 원하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① 군주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간과한다.
- ② 군주는 사회적 혼란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군주는 자기와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군주는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군주는 이로움[利]보다는 덕으로 어짊을 실행하는 정치에 해야 함을 간과한다.

04

▶ 23058-0076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善]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는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며,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것, 즉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는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이므로 이미 전적인 자족에 도달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 어떤 군집 동물보다 더 완전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국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보기

- ㄱ. 국가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에 형성되는가?
- ㄴ. 동물의 군집 생활과 인간의 정치적 삶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 ㄷ.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가?
- ㄹ. 국가는 자급자족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5

▶ 23058-007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국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愛民]을 실현하기 위해 수재(水災)나 화재(火災)가 발생했을 때 구제법을 정성껏 시행해야 한다. 법에 없는 것은 목민관이 스스로 헤아려서 별도로 구제해야 한다. 또한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자애로워야 한다. 자애로워지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씩씩이를 절약하는 것은 목민관의 으뜸되는 임무이다.

을: 국가는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 오직 수호자들만이 국가를 잘 경영하고 시민 전체를 행복하게 한다. 또한 완벽하게 훌륭한 국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올바른 것이다. 지혜나 용기는 그 국가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지만, 절제는 국가 전역에 걸치는 것이다.

- ① 갑: 국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 애민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에 명시된 내용만을 실행해야 한다.
- ③ 을: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국가만이 시민 전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 ④ 을: 훌륭한 국가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갑과 을: 국가에서 다스림을 행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06

▶ 23058-007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공통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합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p> <p>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동의 없이 그를 복종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 계약으로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고 시민적 자유를 획득한다. 사회 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는 데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동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범법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인민이 아니라 통치자가 가지고 있다.
- ㄴ. B: 각 개인을 보호해 주는 공통 권력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 ㄷ. B: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ㄹ. C: 주권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므로 주권은 나누어 가지거나 분할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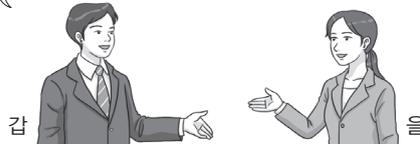
07

▶ 23058-007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는 권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위를 동意的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동意的만이 효력을 갖는데,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약속은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불합리합니다.

한 개인이 특정 국가의 영토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유·무형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동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동意的 관점에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보기

- ㄱ. 갑: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한 실제적인 약속만이 구속력을 갖는다.
- ㄴ. 을: 암묵적인 방법으로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 ㄷ. 갑과 을: 시민들의 동의 여부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ㄹ. 갑과 을: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8

▶ 23058-008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시민들이 통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닌 정치적 권위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모순되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부조리를 인식하고 참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 시민의 자질을 거론할 때 중요한 것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시민' 혹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정치 참여는 시민의 자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정치 참여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국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① 시민의 자질 향상이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시민은 국가가 지닌 정치적 권위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③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만으로도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
- ④ 시민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도덕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 ⑤ 시민이 통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저해가 되는 일이다.

09

▶ 23058-008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필요한가?
- 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이나 정책에 대해 불복종해야 하는가?
- ㄷ.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가?
- ㄹ.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한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 23058-008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p> <p>을: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불복종이 독재 체제에서는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p> <p>병: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해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법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div>

- ① A, F: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B: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임을 간과한다.
- ③ C: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④ D: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를 지닌 사회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경우에 따라 개인들은 불의한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	재화의 대량 생산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어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됨
시공간적 제약 극복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망의 연결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됨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됨

(2)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

환경 문제 발생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등으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함
인간 소외와 기술 지배 현상 초래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함
인권·사생활 침해	사이버 모욕과 폭력, 개인 정보 유출, 전자 판옵티콘 사회의 도래, 빅 브라더 출현 등의 우려가 제기됨
생명의 존엄성 훼손	장기 이식,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유전자 조작, 생명 복제와 관련한 생명 윤리 문제가 발생함

(3) 과학 기술 발달에 대한 상반된 시각

과학 기술 지상주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시각 과학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문제점	과학 기술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함
과학 기술 혐오주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음 과학 기술로 인해 결국 인간 소외와 기술 지배가 나타난다고 주장함
	문제점	과학 기술의 성과를 부정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1)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

- ①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봄
- ②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봄
- ③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구분되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봄
- ④ 과학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2)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 ①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과는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봄

정당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 정당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어야 함 •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 •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 • 과학자들의 연구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 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

- ②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봄
- ③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봄
- ④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가치와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봄

자료와 친해지기 현대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 이해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중략)… 현대의 기술 속에 성(盛)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채굴되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게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중략)…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을 석탄과 광석을 캐내기 위해 도발적으로 굴착한다.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농부들이 예전에 경작하던 밭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경작은 키우고 돌보는 것이었다.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 싹이 돌아나는 것을 그 생산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토 경작은 자연을 닦아세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경작 방법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 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우리농을, 우리농은-파괴를 위해서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든-원자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을 '뒹달'로 이해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은 기술을 통해 자연을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하고 탈은폐하도록 뒹달하며, 나아가 인간 스스로를 기술의 대상, 즉 부품으로 만든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사물에 대한 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과학 기술자의 책임

내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과학 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실천하는 것을 말함 •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표절, 변조, 위조,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혀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과학 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함 • 과학 기술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 강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요구됨 • 과학 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위험성을 알리고 연구를 중단해야 함 •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함

4 요나스의 책임 윤리

(1) 책임 윤리의 필요성 제시

- ① 책임의 범위를 현대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봄
- ② 현대의 과학 기술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자연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③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 다른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제시함
- ④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當爲)로 이어져야 한다고 봄

(2)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 강조

- ①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함
- ②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 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함
- ③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봄
- ④ 현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인류 존속을 위해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봄

5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

(1)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

- ① 과학 기술자의 개별적 책임만으로는 과학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②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과 결과를 평가·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국가의 각종 윤리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함

(2) 시민의 노력

- ① 시민도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② 시민은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과학 기술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전통적인 윤리학은 ‘지금’과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용무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 늘 반복되는 전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 윤리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해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 및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우리가 반성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는 데 반하여, 나쁜 것의 단순한 현재는 우리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도록 강요한다. …(중략)…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 요나스, “책임의 원칙” -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에서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행위가 미치는 범위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크기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 간의 관계와 ‘지금’, ‘여기’의 문제로 한정하는 전통의 윤리학을 대신해 인간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윤리학(책임 윤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인간의 참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주장하였다.

01

▶ 23058-0083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현대 과학 기술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 현저하게 달라졌다. 정보 통신 기술, 생명 공학 기술, 로봇 공학 기술 등의 발달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생명 공학 기술로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반면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과 자연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명 파괴적 잠재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생명 공학 기술은 기이한 동물 종을 만들거나 개체 생명체를 복제하는 등 생명체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 기술에 대해 깊게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

- ①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과학 기술의 유용성을 활용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③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이 초래할 위험성에만 주목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02

▶ 23058-0084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전혀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현대의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채굴되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게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때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그리고 도발적 요청에 따라 탈은폐되는 모든 것은 부품이 될 뿐이다. 인간은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 에너지를 채굴해 내라는 도발적 요청에 응함으로써 탈은폐의 방식인 주문 요청에 관여하고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현대 기술의 본질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V	V		V	
현대 사회에서 자연은 계산 가능하고 변환 가능한 에너지로 간주된다.				V	V	V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V			V	V
현대 기술은 사물을 부품화하여 사물이 지닌 고유한 본질을 박탈한다.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03

▶ 23058-008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관찰, 실험 및 논리적 사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견 및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전제 ① 어떤 연구 과정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전제 ② _____ ㉠ _____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결론 과학 기술의 발견 및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div>	

- ①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다.
- ②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발견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은 배제된다.
- ③ 과학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면 과학 기술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④ 과학 기술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 보장된다.
- ⑤ 과학 기술의 발견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다.

04

▶ 23058-0086

(가)의 gaps,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gap: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p> <p>을: 기술이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이며,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인간이 기술을 어떤 조건 아래 놓는가이다.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사상가 gaps,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A</p> <p>예</p> <p>B</p> <p>예</p> <p>가의 입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니요</p> <p>C</p> <p>예</p> <p>을의 입장</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보기

- ㄱ. A: 기술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 ㄴ. B: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가?
- ㄷ. B: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하는가?
- ㄹ. C: 기술 그 자체는 인간에게 좋은 것이므로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5

▶ 23058-0087

갑, 을이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 기술은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 기술의 연구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다양한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 ① 갑: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때 연구의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된다.
- ② 갑: 과학 기술의 결과 활용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 ③ 을: 기업의 연구비 지원 여부가 연구 대상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④ 을: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의 활용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06

▶ 23058-008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할 행위들의 규모 및 결과는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다. 전통 윤리학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윤리학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종류의 윤리학이 요청되며, 새로운 윤리는 광범위한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서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우리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과 더불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보기

- ㄱ. 과학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가?
- ㄴ. 전통 윤리학을 통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ㄷ.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를 함축하는가?
- ㄹ.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8-0089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자네가 로봇 윤리에 대하여 나의 조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네. 내가 생각하는 로봇에 대한 윤리적 지침의 기본 원칙과 실천 원칙은 다음과 같다네. 첫째, 로봇의 제작 목적이나 그 행위는 인간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으며, 로봇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개발, 사용되어야 한다네. 둘째, 로봇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네. 셋째, 로봇이 다양한 사고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제작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네. 넷째, 제작자는 사용자가 로봇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그 작동을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탑재해야 한다네. ... (후략)

- ① 로봇은 사용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② 로봇은 인류 전체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③ 로봇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수단적인 지위보다는 주체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 ④ 로봇은 성별이나 연령, 인종, 종교, 국가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⑤ 로봇의 제작자에게는 자신이 제작한 로봇이 일으킬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08

▶ 23058-0090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p> <p>을: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또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활용한 사람들에게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과학 기술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

ㄴ. B: 과학 기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지닌다.

ㄷ. B: 과학 기술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활용한 주체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ㄹ. C: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되는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9

▶ 23058-0091

같은 부정, 음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 기술의 편리성 뒤에는 많은 문제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 기술 개발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을: 맞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과학 기술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영향 평가 제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겪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과학 기술 정책에 반영되어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술 영향 평가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① 일반 시민들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가?
- ② 기술 영향 평가 제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③ 전문가 중심의 기술 영향 평가 제도가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가?
- ④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 ⑤ 새로운 과학 기술로 인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인식해야 하는가?

10

▶ 23058-0092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그들을 산출한 자를 색출하여 잘못을 나무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죄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처벌의-현대인들이 미래의 희생자들 앞에서 받아야 할 처벌-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 영역을 보게 된다. 따라서 생물학적 기술의 점증하는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불행의 예방만 허용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 상황〉

과학 기술자 A는 한 기업으로부터 후세대의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 연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연구에 대해 A는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업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이 연구가 가져올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 연구가 가져올 혜택에 주목하여 행동하세요.
- ② 현세대는 후세대에 대하여 비호혜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 ③ 유전자 조작을 통한 자질 강화는 가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 ④ 인간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세요.
- ⑤ 과학 기술자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됨을 명심하세요.

1 정보 기술 발달과 정보 윤리**1.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1)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긍정적 변화**

- ① 삶의 편리성 증대: 일상적인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
- ② 수평적·다원적 사회로의 변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수평적·다원적 사회로 변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
- ③ 전문적 지식의 습득 기회 확대: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④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예술이나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접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정적 변화

- ①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을 남용하여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짐
- ②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 비판적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함
- ③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불법 복제, 표절,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1) 사생활 침해 문제**

- ①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의미함

- ②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도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③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이 통제·억압당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④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

(2) 저작권 문제

- ①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②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산물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봄
-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봄
-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

-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봄
-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봄
-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저작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자료와 친해지기 **인공 지능 알고리즘에 어떻게 편향이 개입되는가?**

우리는 알고리즘을 인간의 기호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공 지능 판사나 인공 지능 의료 진단기가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인간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공 지능 알고리즘은 인간 사회의 거울이다. 인공 지능의 최종 출력과 판단은 컴퓨터 자체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인공 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 일반인,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인간이 개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편향'이란 인공 지능이 기계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선택, 수집, 분류, 사용할 때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공평하지 않은 기준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 지능이 내리는 의사 결정이 잘못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가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인공 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비도덕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이다. 이는 인공 지능 시스템 자체가 편견을 가져서 그런 것도, 인공 지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다. 이 편향은 인공 지능이어서 가지게 되는 편향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성향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가 편향성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 다음 질문을 던져 보고 스스로 답해 보면 의식적으로는 골라내기 어려운 무의식적 편향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인공 지능·로봇을 훈련하기 위해 데이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취하는가?', '선택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자동적으로 평가를 낮게 받는 사회 집단이나 특정 소수자는 없는가?'

- 인공 지능과 가치 연구회, "인공 지능 윤리 다원적 접근" -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공 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인공 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편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편향된 데이터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이버 폭력 문제

- ① 사이버 폭력의 의미: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 ③ 사이버 폭력의 특징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됨
 - 한번 유포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됨
 -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움

(4) 표현의 자유 문제

- ①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됨
- ②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③ 가상 공간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활발한 사회 참여와 연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임
- ④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함

3. 정보 사회에 필요한 정보 윤리

- (1) 존중: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해야 함
- (2) 책임: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삼가고, 정보가 자유롭게 제작·유통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함
- (3)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함
- (4) 해악 금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유출,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됨

2 정보 사회의 매체 윤리**1.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의 특징과 문제점****(1) 뉴 미디어의 특징****① 매체와 뉴 미디어의 의미**

- 매체(media):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신문이나 서적 등의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등이 있음
- 뉴 미디어(new media):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를 의미함

자료와 친해지기 뉴 미디어 시대의 표현의 자유 이해

뉴 미디어 시대는 개인을 미디어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변신시켰다. 다양한 개인 매체의 출현이 사람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촉발시키며 자기표현의 시대를 열었다. 단순한 시청자나 독자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 스스로 제작자가 되고 스토리 작가가 되었다. '나 자신을 방송하라.'는 말처럼 우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객관보다는 주관이, 지식보다는 의견이, 사실보다는 느낌이 찬양받는 시대'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자기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보이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의 디지털 신분을 자리매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상실되기 쉽다는 것이다. 자유에 책임과 절제가 없다면 그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자기표현의 자유가 개인 감정의 무절제한 배설로 흐르고 있다. SNS와 댓글이 맹목적 비방과 욕설, 미움과 증오의 배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혐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디지털이 우리 삶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사회의 규범과 윤리는 취약하다. 일시적으로는 익명이란 보호막 뒤에 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발자국'이 남게 되고 이는 언젠가 '다모클레스의 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결국 '양심의 가책'이란 창이 언젠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 이홍규, "디지털 시대, 인간에게 묻다"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용자 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이와 함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뉴 미디어 시대의 정보 주체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② 뉴 미디어의 특징

상호 작용화	뉴 미디어는 송수신자 사이에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게 함
비동시화	뉴 미디어는 정보 교환 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 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함
탈대중화	뉴 미디어는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함
능동화	뉴 미디어는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공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
종합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 망으로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됨

(2) 뉴 미디어의 문제점

① 정보의 객관성 문제

-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뉴 미디어의 정보는 기존 매체 수준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뉴 미디어의 정보가 객관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할 감시 장치가 기존 매체에 비해 부족함
- 뉴 미디어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빠른 확산력과 결합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②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저작물을 여러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하며, 그 결과 책임도 분산되어 윤리적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

③ 사적 정보 노출의 문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2.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1) 개인 정보의 신중한 처리

- ①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②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2) 표절 금지

- ① 표절이란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도 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② 표절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

(3) 상호 간의 소통과 시민 의식 함양

- ①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체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함
- ② 매체 이용자들은 규범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시민 의식 등을 포함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함

(4) 매체 이해력 습득

- ①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도 함
- ② 뉴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있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③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존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의 지향점은 미디어의 이용 및 활용 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개발하여 미디어를 통한 상호적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개인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 (중략) ...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미디어로 매개되는 복잡한 세상에서 비판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화이다. 이것은 사회 참여를 목표로 삼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다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민 교육적 의의는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미디어는 시민들이 특정한 공공 이슈나 문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미디어 텍스트에 내재한 의미 구조를 해석하도록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시민 교육적 가치가 있다.

- 이경한 외 5인, "리터러시와 시민성 교육" -

저자는 개인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단순히 미디어 내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의제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며,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성 또한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01

▶ 23058-009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 지능 기술 기반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학습을 위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사적 대화, 민감 정보 등을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개인이 보정받아야 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기술적 정교화와 더불어 개인 정보 보안 제도의 정교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에 기반한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이용 동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음성 정보를 수집한다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①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음성 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 ② 인공 지능 기술 발전은 개인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이다.
- ③ 인공 지능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인간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없다.
- ④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 인공 지능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없애야 한다.
- ⑤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02

▶ 23058-009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이 창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 생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p> <p>을: 사회 발전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창작한 정보에 한정해야 한다. 인공 지능은 기존의 정보를 조합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정보를 창작할 수 없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정보 생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ㄴ. B: 정보의 생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ㄷ. B: 인간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ㄹ. C: 인공 지능을 정보 창작의 주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3

▶ 23058-009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많은 기업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용자 간 소통이라는 SNS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재되는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 무역을 거친 물품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의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나)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SNS를 통한 모든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 ㄴ. A: SNS를 통한 광고가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ㄷ. B: SNS를 통한 광고가 SNS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 ㄹ. C: SNS를 통한 광고가 윤리적 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4

▶ 23058-009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대 간 정보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과 갈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비대면 기반 서비스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년층에 정보 기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양적인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보급된 정보 기기를 자유롭게 조작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이 정보 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생산할 수 있도록 노년층이 활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정보 기기 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질적인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① 정보 기기의 대량 보급은 모든 정보 격차의 해소를 보장한다.
- ② 세대 간 정보 격차 문제는 사회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 ③ 노년층의 정보 처리 역량은 세대 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 ⑤ 세대 간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05

▶ 23058-009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 기사와 스포츠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모든 기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을: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악성 댓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을 금지하자 기사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없게 되어 선정적인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독자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갑: 언론 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독자의 비평은 필요하지만, 이는 언론사에 전화를 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사에 작성된 악성 댓글은 여러 사람에게 노출됨으로써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을: 악성 댓글로 인한 다수 의견의 왜곡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댓글 작성 자체를 막는 것은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 ①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 ②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을 허용해야 하는가?
- ③ 독자에 의한 기사 비평은 언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 ④ 기사에 작성된 댓글이 여론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⑤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모든 댓글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06

▶ 23058-009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인류가 그 사람을 침묵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의견이 틀렸다는 판단 아래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모두 무요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시대에 제기된 의견 중에서 후대에 거저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억압하려는 의견이 사실은 진리일 수 있으며, 충돌하는 의견이 모두 부분적으로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이 진리이고 반대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과의 충돌을 통해 명료하고 생생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철저하게 부정하고 논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의견이나 행동은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A는 이용자 B가 다수의 생각과 반대되는 글을 작성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이용자들은 B가 더 이상 글을 작성할 수 없게 해달라고 A에게 요청하였다. B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을 확인한 A는 다수의 의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B의 글 작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다수가 주장하는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②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소수자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는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③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지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다수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소수자의 반대 의견 표현을 제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⑤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07

▶ 23058-0099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의 의미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장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개인은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창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 중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보, 타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왜곡된 정보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모든 개인은 자신이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며, 나아가 자신이 생산, 전달하는 정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윤리적 판단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매체 이해력의 의미를 확장하여 정보 해석 및 선별 능력은 물론 인권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도 매체 이해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기

- ㄱ.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
- 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 ㄷ. 거짓 없는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매체 이해력에서 제외해야 한다.
- ㄹ. 도덕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매체 이해력에 포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 23058-0100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리며 육아 과정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아동의 개인 정보를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로 자녀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온라인에 공개된 자녀의 개인 정보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되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 악성 댓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하며, 자녀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가 원할 경우 부모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게시된 자녀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① 부모는 자녀의 성장 과정을 다수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부모는 아동인 자녀를 개인 정보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④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부모와 달리 아동인 자녀의 개인 정보 유출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09

▶ 23058-0101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메타버스 아바타에 동질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스토킹,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사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수립과 메타버스 플랫폼 관리자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기

- ㄱ.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성범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ㄴ. 메타버스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도덕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 ㄷ. 실제 현실과 달리 메타버스에서는 성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ㄹ.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은 윤리적인 메타버스 문화의 형성을 보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 23058-0102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제공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p> <p>을: 인터넷 사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감을 향상시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일정한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다.</p>
(나)	

- ① A: 인터넷 사용자의 악성 댓글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공개 의무 제도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B: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④ B: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수립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B: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1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1) 인간 중심주의

- 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함
- ②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고 봄
- ③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도구적 자연관을 지님
- ④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여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됨

⑤ 대표적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함
아퀴나스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주장함
베이컨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수록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더 커진다고 주장함
데카르트	•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기관들의 배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기계라고 주장함 •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본 반면,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함
칸트	•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봄 • 자연 중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파괴의 성향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키므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고 봄

(2) 동물 중심주의

- 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봄
- ② 한계: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렵고,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③ 대표적 사상가

싱어	•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로 보며,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함 •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단지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함
레건	•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동물에 대한 실험, 매매, 사냥, 식용 등이 비윤리적인 이유는 삶의 주체인 동물이 지닌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봄

(3) 생명 중심주의

- 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
- ② 한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으며,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함

③ 대표적 사상가

슈바이처	•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 외경(畏敬) 사상을 제시함 •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이라고 봄 •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하는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선택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함
테일러	•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자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규정함 • 모든 생명체가 의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유의 선을 지니며, 인간은 이처럼 고유의 선을 지니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봄

자료와 친해지기 테일러의 생명 중심적 관점

동물과 식물이 그들의 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선을 실현하는 데 이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독수리의 시력과 비행 능력이 인간보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닌 것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과 합리성이 그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 후자의 주장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 이 속고의 결론은 고전적인 인본주의의 윤리적 이상이 인간 생활의 표준으로 아무리 고무적이고 감탄스럽더라도 그 관점은 인간 이외 존재보다 인간의 본래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테일러는 이러한 주장이 마치 독수리가 인간보다 시력과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독수리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존재의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생태 중심주의

- 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함
- ②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 윤리가 개별 생명체에 초점을 맞추는 개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체론 혹은 전일론적 입장을 취함
- ③ 한계: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한계를 지님
- ④ 대표적 사상가

레오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가 지 확대하는 대지 윤리를 주장함 • 대지 윤리는 인간이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대지는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 • 대지 윤리에서는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시함
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운동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함 • 자신을 자연과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함

2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유교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시함 •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지향함 •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함
불교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함 •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을 제시함

도가의 관점

-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봄
-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하여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함
- 인간이 자연에 조작과 통제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봄

3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의 윤리적 쟁점

(1) 환경 문제의 원인

- ①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② 산업화와 도시화,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으로 오염과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함

(2) 기후 변화와 기후 정의

- ① 기후 변화: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구 온난화임
- ② 기후 정의: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봄
- ③ 기후 변화의 피해는 개발 도상국,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크게 발생함
- ④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나라에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 계층이 받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 (1)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됨
- (2)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해야 함
- (3)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어느 세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남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4)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세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와 친해지기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의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철학적 가치이다. 대지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목적을 초월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중략) ...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자체가 갖는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지를 오직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 반대하였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이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01

▶ 23058-01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 조건은 이익 관심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돌은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가진다.
- ② 인간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 간 이해관계는 상충하지 않는다.
- ③ 인간과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동물을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 ④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을 항상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02

▶ 23058-010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동물이 아무리 완전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 꼭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다. 까치나 앵무새가 사람처럼 말을 토해 낼 수는 있으나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이성을 덜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동물은 전적으로 어떤 이성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을: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 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사실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주위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자신을 생명 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생명 의지로 파악한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는 사랑, 헌신, 동정, 공동의 기쁨, 협력 등으로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윤리적 인간에게는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

- ① 갑: 동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 ② 갑: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비이성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 ③ 을: 윤리적 인간은 자신의 생명 의지를 부정하며 다른 존재의 삶에 헌신한다.
- ④ 을: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윤리적 인간은 생명체 간 차이를 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03

▶ 23058-010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생태학적 도덕의식은 대지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확산을 반영한다.</p> <p>을: 인간과 삶의 주체인 동물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을 오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만 바라본다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 인간이 희생될 수 있다.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공동체는 보전될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보기

- ㄱ. A: 정상적으로 성장한 포유동물이 가진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 ㄴ. B: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ㄷ. B: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가 도덕적 행위의 의무를 갖는가?
- ㄹ.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8-010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고유의 선을 갖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인간의 활동으로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실제로는 사람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 ① 갑: 인간과 달리 동물과 식물을 수단으로만 대해야 한다.
- ② 갑: 고유의 선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체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 ③ 을: 인간의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동물은 존속할 권리를 지닌다.
- ④ 을: 생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05

▶ 23058-010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연재해, 식량 부족 문제 등은 인류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난민, 국가 간 기후 정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거주지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한 방조제가 빗물의 배수를 방해하여 홍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불필요하다.
- ㄷ. 국가의 경제 상황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ㄹ.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6

▶ 23058-01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아실현을 심화한다는 것은 자아를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에 속한, 자연의, 자연을 위한 존재이다. 자아실현을 협소한 만족으로 보는 것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통해서 생의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구성하는 더 큰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지각이 충분히 깊어지면 자아와 타자의 구별을 초월하면서 둘 사이의 대립이 사라진다. 타자의 자아실현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 자신의 자아실현도 방해 받는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의 건전한 이익을 해치고 생존할 수 있는 잠재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보기

- ㄱ.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
- 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모든 자연 훼손은 과학 기술을 통해 복원 가능하다.
- ㄷ. 타자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신의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 ㄹ. 환경 보호를 위해 인간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7

▶ 23058-010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 윤리학은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한 윤리학을 형성하지 않으며,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견과 지구의 전체 영역을 포함시키는 데 제한적이다. 인간 권력의 발전에 따라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필요하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정언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구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 ① 현세대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모든 책임의 원형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다.
- ③ 현세대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 ④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⑤ 미래 세대 존재 보장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현세대 인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08

▶ 23058-01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p> <p>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인간의 평등을 위한 최선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영역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p> <p>병: 도덕 행위자인 인간은 동료 인간에 대해 의무를 지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닌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나)	

- ① A, F: 인간이 동물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 개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체 간 도덕적 지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⑤ E: 인간은 다른 개체와 달리 자연 질서에서 독립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09

▶ 23058-01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식물, 동물은 인간이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p> <p>을: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악화되어 점차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p> <p>병: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욕구, 기억, 미래에 관한 의식,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p>
(나)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기

- ㄱ. A: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 ㄴ. B: 자율적인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는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가?
- ㄷ. C: 비이성적 개체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ㄹ. D: 도덕 행위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 23058-0112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면 본성을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모든 일이 천명(天命)이 아닌 것이 없으니 천명을 순리대로 받아야 한다. 서(愆)를 힘써 행하면 인(仁)을 구하는 길이 더없이 가깝다.

(나)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중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 하늘과 땅은 인(仁)하지 않아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아서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이면 더욱 밖으로 나온다.

- ① (가)는 하늘과 땅이 서로 상응하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른다고 본다.
- ② (가)는 만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여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나)는 인간을 무목적의 질서를 가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본다.
- ④ (나)는 자연과 자신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통해 무위(無爲)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⑤ (가)와 (나)는 이상적인 인간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다고 본다.

11

▶ 23058-0113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땅에 서려고 할 때는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둘을 버려도 하나가 또한 서지 못하여 서로 의지해야 서게 되는 것이다.

- ① 인간과 달리 동물과 식물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는가?
- ② 지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 ③ 참된 진리를 깨달아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 ④ 불변하는 실체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가?
- ⑤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수행함으로써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12

▶ 23058-01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파괴적인 성향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그것은 유용성의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정을 약화시킨다.</p> <p>을: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지능이나 합리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다.</p> <p>병: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대지 윤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 동물, 이를 포괄하는 대지로 확장한다.</p>
(나)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 ㄱ. A: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한정해야 한다.
- ㄴ. B: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ㄷ. C: 도덕적 행위 주체는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 ㄹ. D: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1) 인간의 삶과 예술

① 예술의 어원

동양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는다.'는 뜻
서양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함

- ② 예술의 의미: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인간의 경험과 그 산물
- ③ 예술의 역할: 감정의 순화,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 인간 상호 간의 교류, 사회 모순 비판, 도덕적 교훈 제공, 삶에 대한 성찰 등

(2) 예술과 윤리의 관계

① 예술과 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인간이 총체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나 인간성을 향한 정신 활동임
차이점	• 예술: 미(美)를 추구,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 자유를 추구함 • 윤리: 선(善)을 추구, 현실이라는 제약 속에서 도덕적 당위를 추구함

②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관점

- 모든 예술 작품은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함
-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예술가도 사회인이며 예술 활동 역시 사회 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는 참여 예술론과 관계됨
- 문제점: 예술에서 미적 요소가 경시되거나 자유로운 창작이 제한될 수 있음
- 대표자: 플라톤, 톨스토이

③ 예술에 대한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의 관점

- 예술은 미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 예술론을 지지함
- 문제점: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음
- 대표자: 와일드, 스펡진

④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바람직한 관계

- 칸트: 미(美)와 선(善)은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 됨
- 정약용: 악(樂)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악을 가까이 해야 함
-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해 인간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도덕적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음
-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예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함

(3) 예술의 상업화

① 현대 예술의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의 등장	• 기존 질서와 가치 체계를 해체하는 팝 아트(pop art), 과거의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기존 작품을 혼성 모방하는 키치(kitsch)가 등장함 • 고급과 저급, 창조품과 기성품, 작가와 감상자 등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은 권위주의적 사고나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를 혁신하는 데 기여함
예술의 상업화의 확산	•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됨 •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예술 작품에 상품 가치를 매겨 거래함으로써 예술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됨

자료와 친해지기 예술에 대한 톨스토이의 관점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예술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한 수단이며 따라서 진보, 즉 인류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수단이다. 언어는 지금 생존해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前) 세대와 동세대의 선구자들이 경험과 사색으로 알아낸 일들을 모조리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예술도 지금 살아 있는 최근 시대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현재의 뛰어난 선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모조리 경험시켜 준다. 그리고 지식의 진화가 행해지고 있듯이, 즉 한결 더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이 그릇되고 불필요한 지식을 추방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예술에 의한 진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결 더 선량하고 더 필요한 감정은 저속하고 불량하여 사람들의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을 대체한다. 예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예술은 이 임무를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쁜 것이 된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

톨스토이는 예술을 통해 현재대 인간이 과거 시대와 소통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고양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추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톨스토이는 이를 예술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면 좋은 예술이 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예술이 된다고 보았다.

② 예술의 상업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계층만 누려왔던 예술 작품을 일반 대중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 •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음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성을 중시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상업적 가치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 예술 작품이 지향해야 할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음 • 예술이 오락이나 유희 거리로 전락하여 자극적인 표현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예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법을 복제함으로써 예술의 창조성을 경시할 수 있음

2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1) 대중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① 대중문화의 의미

- 대중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
-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음반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

② 대중문화의 중요성

- 대중문화에 대한 일상적 노출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줌
- 대중문화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줌

③ 대중문화의 긍정적 효과

- 다양한 문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함
- 대중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2) 대중문화의 문제점

① 선정성과 폭력성

-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됨
- 폭력을 미화하여 대중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선정성과 폭력성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② 자본 종속

-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함
- 막대한 자본 투자력을 지닌 일부 대형 문화 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하게 됨
- 상업적 이익만을 우선하여 획일적 문화 상품이 양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위축될 위험성이 커짐
-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각 개인이 문화 산업의 도구가 됨으로써 예술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음

(3)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① 윤리적 규제에 대한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의 선정성은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규제가 필요함 •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로운 대중문화를 윤리적 규제를 통해 선별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②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세

-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
-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건전한 대중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법적·제도적 노력을 병행하여 대중문화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에 대한 입장

갑이라는 영화와 을이라는 영화 사이에 또는 상이한 가격 층의 잡지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차이란 사실 자체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차이이기보다는 소비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장악하기 위한 차이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차이는 오히려 강조되고 선전된다. 대중에게는 각계각층을 위해 다양한 질(質)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양화(量化)의 법칙을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여러 유형의 인기 가요나 인기 배우, 멜로물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들도 겉보기에는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며 세부 사항들만이 대체 가능하다. …(중략)… ‘항상 동일한 것’이라는 관념은 또한 과거에 대한 관계도 주재한다. 후기 자유주의 단계에 비해 대중문화 단계에서 새로운 것은 ‘새로움’을 배제하는 것이다. 기계는 항상 같은 자리를 돌고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서 배제된다. 영화 제작자는 베스트셀러에 의해 보증된 안심할 수 있는 원고가 아닌 경우 모든 원고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바로 그 때문에 모두에게 친숙한 것이지만 아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드는 말인 ‘참신한 아이디어’, ‘신선한 무엇’, ‘경이스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들먹여진다.

- 아도르노 ·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

아도르노는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로서 대중문화는 미적 가치가 아닌 이윤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이윤을 창출한 작품을 모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표준화 과정에서 대중이 식상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차이와 개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소비자를 분류하고 조직하여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이 아닌 사이버 개성이라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1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람이 인(仁)하지 않으면 예(禮)를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으며,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악(樂)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예악의 절도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현명한 벗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유익한 즐거움이다.</p> <p>을: 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 따라서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나 귀에 즐거운 것이나 입에 단 것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악기의 소리는 귀에 즐거움을 주지만 만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p>
(나)	

보기

- ㄱ. A: 음악을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다.
- ㄴ. B: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ㄷ. C: 음악은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C: 음악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02

▶ 23058-01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갑: 예술에는 외관이 있고 그 밑에 상징이 있다.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자이다.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 같은 것은 없다. 잘 쓰인 책과 못 쓰인 책이 있을 뿐이다. 예술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며 윤리에 동조하지 않는다.</p> <p>을: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며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의 유비(類比)를 제시하되 동시에 그 차이에도 주의해 두고자 한다.</p>
--

- ① 갑: 도덕적인 동기로 창작된 예술 작품만이 미적 가치를 가진다.
- ② 갑: 예술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보다 윤리적 공감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을: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감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미적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 ④ 을: 미적 체험은 모든 감정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예술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도덕성 실현이다.

03

▶ 23058-01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음악[樂]이란 즐기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즐기면 겉으로 표현되고, 겉으로 표현되었을 때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선왕은 혼란을 싫어하여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여 음악을 즐기면서도 사악한 기운이 가까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선왕이 음악을 제정한 까닭이다. 간소한 음악은 거스르는 기운이 생겨나게 하며 이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어지러움이 생겨난다. 올바른 음악은 순조로운 기운이 생겨나게 하며 이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다스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음악에 대해 거취를 신중히 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올바른 음악은 개인들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음악을 권장해야 하는가?
- ㄷ. 음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ㄹ. 올바른 음악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8-0118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표현물입니다. 제도를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의 표현까지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창작물이 혐오와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갑: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대중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면 곧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입니다.

을: 대중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합니다. 대중의 선택만 기다리는 것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 ① 예술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 ② 모든 예술 작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 ③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가?
- ④ 예술가의 창작물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⑤ 예술가의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정당할 수 있는가?

05

▶ 23058-01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치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그렇게 되듯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이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나쁜 교육을 받는다면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시가(詩歌)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 ① 인간은 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 ② 예술 작품은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③ 국가에 의한 예술 작품의 선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④ 예술가는 예술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을 창조해야 하는가?

06

▶ 23058-01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산업의 물샐틈없는 통일성은 정치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갑이라는 영화와 을이라는 영화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는 소비자들을 장악하기 위한 차이에 불과하다. 문화 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들을 재생산하려 든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문화 산업의 인장이 찍히기 때문에 문화 산업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세상에 등장할 수 없다.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모든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 산업에 의해 사전 결정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즉 문화 산업의 객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 체계의 원리이다.

- ① 문화 산업은 독창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 ② 문화 산업은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촉진한다.
- ③ 문화 산업의 산물은 주체적인 소비자들의 계획에 따라 생산된다.
- ④ 문화 산업은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촉진하여 적극적인 사유를 돕는다.
- ⑤ 문화 산업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07

▶ 23058-012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공 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 지능 기술로 제작된 예술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 지능을 예술 창작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의 창작은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다. 예술 작품의 창작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작 과정에서 창작 주체의 미적인 평가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간 창작자는 자체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인공 지능은 무작위로 작품을 내놓는다. 인공 지능은 원리상 평가 기준을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물감, 대리석, 피아노, 글자 등과 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많은 점에서 인공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행위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

- ① 인공 지능의 발전은 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② 인간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
- ③ 인공 지능은 인간과 달리 예술 작품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인공 지능은 인간과 달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품을 평가한다.
- ⑤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할 수 없다.

08

▶ 23058-012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릇 시(詩)의 근본은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의 떳떳한 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더러는 즐거운 뜻을 펴기도 하고, 더러는 원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펴는 데 있다. 다음으로 세상을 걱정하고 항상 힘없는 사람을 구해 주고 재산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서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가져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면 그런 시는 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보기

- ㄱ. 시를 통해 인륜(人倫)의 도리를 밝혀야 하는가?
- ㄴ. 시의 내용이 아닌 문장의 형식을 중시해야 하는가?
- ㄷ.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시를 권장해야 하는가?
- ㄹ. 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9

▶ 23058-012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예술가들은 작가 정신의 실현 대신 이윤 추구를 위해 대중성이 높은 작품만을 창작함으로써 예술 작품이 획일화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창작물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예술의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을: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다른 영역과 같이 이윤 추구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더욱 발전한 작품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예술을 접하게 되어 대중들의 다양한 취향이 작품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① 갑: 모든 형태의 창작물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향상시킨다.
- ② 갑: 예술의 상업화는 작가의 창작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을: 예술가의 이윤 추구 행위는 예술가의 창의성을 저해한다.
- ④ 을: 예술의 상업화는 대중이 예술에 접근할 기회를 감소시킨다.
- ⑤ 갑과 을: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 작품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10

▶ 23058-012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술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소통하는 한 수단이며 따라서 진보, 즉 인류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수단이다. 예술은 현대인들에게 이전 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선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경험시켜 준다. 예술에 의한 감정의 발달은 인간의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을 추방한다. 여기에 예술의 목적이 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결코 예술을 정의하는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대상이 예술다운 것의 전형이 될 수도 없다. 쾌락을 예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 발전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의 목적을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술의 의의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보기

- ㄱ. 예술이 인간의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ㄴ. 예술가가 창작한 모든 예술 작품은 바람직한 것인가?
- ㄷ. 예술은 인간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는가?
- ㄹ. 예술의 목적을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 의식주 윤리

(1) 의복 문화와 윤리적 문제

① 의복의 윤리적 의미

개인적 차원	의복을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함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행사에서 의복을 통해 상대에게 예의를 표시함 의복을 통해 개인이 속한 집단과 시대의 특징이 드러남

② 의복 문화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자세

윤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시 소비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동조 소비로 비합리적 소비, 패션의 획일화, 몰개성화 초래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사용함으로써 동물 학대 문제 발생 제품(유니폼) 착용으로 개성과 다양성 제한
해결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표현 환경을 고려하는 절제 있는 소비 필요

(2) 음식 문화와 윤리적 문제

① 음식의 윤리적 의미

생명권으로서의 의미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됨
사회적 도덕성으로서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술밥'은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연대와 친교의 정을 표현함 음식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생태계의 질서를 고려함

② 음식 문화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자세

윤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 변형, 화학 물질 과다 첨가로 안전성 위협 무분별한 식량 생산과 음식 소비로 환경 문제 발생 절제하지 않는 폭식과 탐식의 문제 육류 소비 증가로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
해결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공동체와 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음식 문화 확립 음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함 안전한 먹거리,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3)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① 주거의 윤리적 의미

주거 공간의 의미	개인, 가족,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으로, 개인의 품성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줌
주거 공간의 윤리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과 행복,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 가족, 이웃,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여 삶의 질과 인간다움 형성에 영향을 줌

② 주거 문화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자세

윤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적 의미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고 탈공간적 삶을 살게 됨 아파트 거주로 인한 익명성과 폐쇄성, 이웃과 소통 단절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집의 경제적 가치에 집착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역사와 전통 단절
해결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공간의 본질적 가치 회복 공동체를 고려하는 주거 공간을 형성하여 이웃과의 접촉과 교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함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공간이 되어야 함

2 윤리적 소비

(1) 현대인의 소비 생활

- ① 현대 소비문화의 특징: 자본주의의 대량 소비문화 확산, 소비의 자유 보장으로 개별화된 소비 가능
- ② 현대 소비문화의 문제점: 대량 소비와 과소비로 생태계 파괴 초래, 과시 소비나 의존 소비, 충동 소비의 문제

(2)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
윤리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 평화, 인권, 사회 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류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함

자료와 친해지기 베블런의 과시 소비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 계급의 의무가 된다.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 소비이다. 이 두 방편은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

베블런은 유한계급이 명성을 획득하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려 하는데, 이러한 과시의 수단으로 과시 소비와 여가 활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문화 다양성과 존중

(1)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다문화 사회의 특징	여러 나라와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도입되어 문화 선택의 폭이 확대됨
다문화 존중 이유	•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님 • 다양한 문화를 인정할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됨

(2) 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동화주의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샐러드 볼 이론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국수 대접 이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3)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필요성과 한계

①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

- 문화 상대주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
- 윤리 상대주의: 행위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은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 윤리 상대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보편 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까지 인정하게 되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어려워질 수 있음

② 관용의 의미와 필요성

- 관용의 의미: 인종, 문화, 예술 등의 영역에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 관용의 필요성: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 모색,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

③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한계

- 관용의 역설: 무제한적인 관용은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함
- 관용의 한계: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함

4 종교의 공존과 관용

(1) 종교의 의미와 본질

종교의 의미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종교의 본질	• 현실 속에서 겪는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 •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같은 궁극적 물음에 대해 답을 얻고자 함 • 엘리아데: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고,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종교 생활을 강조함

(2) 종교와 윤리의 관계

①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함
차이점	• 종교가 성스러움이나 초월적 문제를 다룬다면 윤리는 도덕규범이나 그 규범의 근거에 대해 탐구함 • 종교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면 윤리는 이성이나 양심, 도덕 감정 등을 근거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관심을 둠

② 종교와 윤리의 상보적 관계

- 바람직한 종교는 인간 존중과 도덕을 전제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장하며 초월적 세계와 관계를 맺음
- 종교가 가진 윤리적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
- 종교와 윤리가 상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3) 종교 간 갈등 문제

종교 간 갈등의 원인	•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 민족적·문화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배타적 태도
갈등 해결 자세	• 관용: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음 • 대화와 협력: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협력해야 함 • 보편적 가치 존중: 인권, 사랑,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지녀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비종교적 인간에 대한 엘리아데의 입장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성스러운 것은 그가 자유를 획득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는 완전한 신비성을 잃어버릴 때에만 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좋은 삶든 간에 종교적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그의 선조가 만들어 낸 상황에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종교적 인간은 탈신성화 과정의 소산이다. 자연이 신의 작품인 우주의 점진적인 탈신성화 과정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인간은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엘리아데, "성과 속" -

엘리아데에 따르면 근대의 비종교인은 초월적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종교적 지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12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공간에서 중심을 찾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 그런 중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그 중심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한 인간의 과제는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하려면 집과 내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 ① 인간에게는 뿌리를 내릴 삶의 중심이 필요하다.
- ② 거주함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집은 인간에게 든든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 ⑤ 집은 인간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02

▶ 23058-012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은 사방을 참답게 보존한다. 건축물은 사방을 저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소중히 보살피는 사물들이다. 사방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 즉 땅을 구원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며 신적인 것을 기다리고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것, 즉 이렇게 사중적으로 소중히 보살핌이 거주함의 단순하고도 소박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건축물은 거주함을 그것의 본질 속으로 아로새겨 놓으며 이러한 본질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다. 지금까지 그 특성이 묘사된 건축함은 거주하게 하는 탁월한 활동이다. 건축함이 사실상 이러한 것이라면, 건축함은 사방이 건네는 말에 이미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죽을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거주함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고향 상실의 참다운 극복이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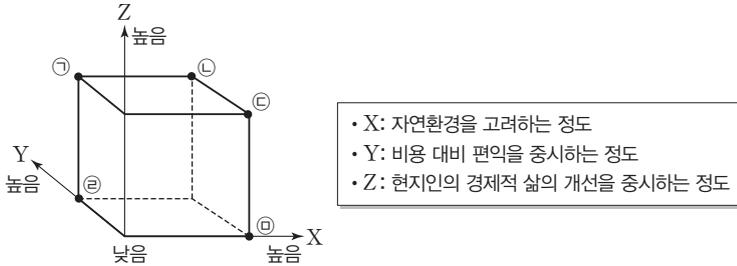
- ① 거주함의 본질은 건축함을 통해 실현될 수 없다.
- ② 거주함의 의미를 자각하는 사람은 자연과 공존을 추구한다.
- ③ 거주함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건축물 안에 사는 데 있지 않다.
- ④ 거주함의 참된 의미를 자각할 때 인간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⑤ 거주함이란 존재하는 것들을 그 본질을 해치지 않고 보살피는 것이다.

03

▶ 23058-0127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구입하며, 가급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여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현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4

▶ 23058-012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 소비이다. 이 두 방편은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 ① 재화 가격이 올라도 과시적 소비는 나타날 수 있다.
- ②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 ③ 유한계급은 명성보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에 더 많이 소비한다.
- ④ 상류 계급의 생활 예절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 ⑤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의 공통 요소에는 낭비가 있다.

05

▶ 23058-012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의 사회적 논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가치의 취득의 논리가 결코 아니며,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 과정은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소비 활동이 포함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코드에 기초한 의미 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측면이다. 이 경우 소비는 교환 체계이며, 언어 활동과 똑같다. 둘째, 분류 및 사회적 차이화 과정으로서의 측면이다. 이 경우 기호로서 사물은 코드에서의 의미상 차이뿐만 아니라 서열의 지위상 가치로서도 정리된다. 이러한 분석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 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준거로서 받아들여진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더 높은 지위의 집단을 준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소비자는 겉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차이화의 강제에 대한 복종일 뿐이다. 타인과 자기를 구별 짓는 것은 동시에 항상 차이의 질서 전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 질서야말로 처음부터 사회가 해야 할 일이며,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차이의 질서 속에서 점수를 얻어 질서 그 자체를 재생산하며, 따라서 이 질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상대적으로만 기록된다.

- 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 ② 소비를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가치의 취득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 ③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측면을 지닌 교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은 서열에서 지위상 가치로 나타나는 기호로서의 사물을 소비한다.
- ⑤ 소비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06

▶ 23058-013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진리에 대한 맹목적인 광신이나 진리에 대한 망각은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가져다주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종교 상호 간의 이해 도모와 평화 운동에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진리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종교의 진리를 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 모든 종교는 그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준 이외에도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기준은 참된 의미의 인간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을 지향하는 근본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보기

- ㄱ. 종교적 평화는 하나의 참된 종교를 통해서만 보장된다.
- ㄴ. 종교 간 평화를 위한 토대로서 인간 존중을 중시해야 한다.
- ㄷ. 종교적 평화는 각 종교의 차이점을 무시함으로써 가장 잘 실현된다.
- ㄹ. 종교 간 진정한 의미의 일치란 위해서는 모든 종교의 자아비판이 요청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7

▶ 23058-013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한다. 그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인식되는 인간의 상태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인간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성스러운 것은 그가 자유를 획득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실존의 큰 부분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발하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 ① 비종교적 인간은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소산이다.
- ②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종교와 신화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 은폐되어 있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 실재를 거부하며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 ④ 비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종교적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
- ⑤ 비종교적 인간은 고정불변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스스로 자신을 만들려 한다.

08

▶ 23058-0132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p> <p>을: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수의 면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각기 다른 고명이 입맛을 돋우듯이,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p> <p>병: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샐러드에 담긴 다양한 재료가 고유한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듯,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p>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 ㄱ. A: 단일한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 ㄴ. B: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ㄷ. C: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 ㄹ. D: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1.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1) 갈등의 의미와 기능

- ① 의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것
- ② 사회 갈등의 다양한 원인

가치의 희소성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사회적 가치는 유한함 → 분배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누군가 소외되면 갈등 발생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자신의 가치관·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제를 다르게 해석함 → 각자의 주장, 가치관 등이 충돌할 때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면 갈등 발생
소통의 부재	적극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한쪽에만 유리한 결론이 나면 갈등 발생
정치적 상황의 변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됨 → 집단적으로 다양한 자율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이 일반화됨 → 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③ 갈등의 기능

순기능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사회는 갈등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역기능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양보하지 않는 사회는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가 해체될 수 있음

(2)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① 이념 갈등

발생 원인	구성원들이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 충돌이 발생함
갈등 양상	• 상대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변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진보적 입장 간 갈등이 심화됨 • 정책 대결이 아닌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함
해결 방안	• 서로의 가치관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적대시하지 말아야 함 • 자유와 평등, 질서와 변화,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등의 균형을 추구함

② 세대 갈등

발생 원인	• 빠른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 의식과 가치관 차이가 커짐 • 전통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가졌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존경심을 잃고 있음
갈등 양상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갈등이 심화됨 • 실업난,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 부양 문제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세대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함
해결 방안	• 세대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 • 젊은 세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일구어 낸 장본인이므로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함

③ 지역 갈등

발생 원인	•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함 •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의식·특권 의식이 지역 갈등을 유발함
갈등 양상	•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상황과 결부하여 지역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함 •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 갈등은 불공정한 인사와 혜택으로 연결되어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킴
해결 방안	•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 ① 사회 통합의 필요성: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②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함
 - 연대 의식을 갖추고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존중해야 함
 -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가치관·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와 관용을 발휘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행위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 의사소통 행위의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의 행위를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에 맞출 수 있을 때에만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행위의 비강압적 조정과 합의를 통한 행위 갈등 해소의 여지가 커진다.
- 명제적 진리와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범의 올바름과 주관적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발언도 합리성의 중심 전제, 즉 근거가 제시되고 비판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

하버마스는 논증적 토론으로서의 담론에서 담론 참여자들이 명제적 진리와 규범의 올바름 그리고 주관적 진실성을 갖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주관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소통과 담론의 윤리

(1) 소통과 담론의 필요성과 윤리적 자세

- ① 소통과 담론의 필요성: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 ② 소통과 담론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춰야 함
 - 공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요구됨

(2) 동서양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함 →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 강조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군자는 소인과 달리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룸 → 조화의 중요성 강조
하버마스의 담론(談論)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합리성: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이성의 능력 • 이상적 담화 조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담화 조건으로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이 있음

2 민족 통합의 윤리

1.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1) 통일에 대한 찬반 논쟁

통일 찬성 논거	통일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 공동체 실현 • 전쟁 공포의 해소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 • 군사비 감소로 복지 혜택 증가 •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차이로 갈등 발생 • 군사 도발 등으로 생긴 북한에 대한 거부감 •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과 경제적 위기 초래 •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 야기 •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군사적 혼란 발생

(2) 통일과 관련된 비용 및 통일 편익

분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 •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소모적 성격의 비용
통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부담해야 할 비용 •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생산적 비용
통일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 •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

(3) 북한 인권 문제

- ① 문제점: 인권 보장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② 북한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인권 보장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음
반대 입장	국가는 외교 관계와 내정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므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2.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1)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

- ① 평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
- ② 자유: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 ③ 인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
- ④ 정의: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

(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 ① 개인적 차원: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배려 실천,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통일에 대한 관심
- ② 국가적 차원: 안보 기반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 병행, 통일의 필요성·방법 및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3) 통일 한국의 미래상

- ① 수준 높은 문화 국가: 전통문화 계승, 창조적 문화 발전
- ② 자주적인 민족 국가: 우리의 힘으로 통일 국가 건설
- ③ 정의로운 복지 국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 건설
- ④ 자유로운 민주 국가: 자유, 평등, 인권 등 권리 보장
- ⑤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

자료와 친해지기 관용의 한계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편협함을 가르치는 어떤 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고, 우리가 살인 혹은 유괴의 선동 혹은 노예 무역의 부흥을 범죄로 간주하듯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포퍼는 무제한적인 관용이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용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도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이 함께 파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용적인 사회, 즉 열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허용되는 한계를 정해야 하며,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 23058-0133

다음 글에서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존중하며,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보기

- ㄱ. 사회 갈등은 사회 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
- ㄴ. 사회 갈등에는 부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있다.
- ㄷ. 작은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 ㄹ.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2

▶ 23058-0134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면서 타인과의 차이를 포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분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 ② 각자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각 개인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가 아닌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 ④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필요하다.

03

▶ 23058-013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정신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처가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부처의 원음에 힘입어 중생들이 한결같이 이해하였으나 쓸데없는 이론들이 구름 일어나듯 하여 혹은 말하기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며, 혹은 '나는 그러하나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드디어 하천과 강을 이룬다. 유(有)를 싫어하고 공(空)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름과 같다. 비유컨대 청(靑)과 남(藍)이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며,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다 용납함과 같다.

<문제 상황>

A는 각 종교 간에, 그리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파들이 각자의 진리만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어 극심한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어떤 종교도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 ② 다른 종교나 종파의 비진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 ③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 ④ 각 종교, 종파의 주장이 진리의 일면을 지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 ⑤ 기존 종교의 교리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 종교의 수립을 추구하세요.

04

▶ 23058-013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일치시키는 논증적 대화의 합의 형성적 힘에 대한 근본적 경험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논증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처음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 덕분에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과 함께 삶의 상호 주관성을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 의사소통적 실천에는 서술적 화행(話行)에 더하여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표출적 자기표현 그리고 평가적 발언이 속한다. 의사소통적 실천에 내재하는 합리성은 의사소통적으로 이룩된 합의가 최종적으로 근거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 ① 이상적인 담화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
- ③ 담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은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자신의 행위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준칙을 타인에게 강제해야 한다.
- ⑤ 의사소통 행위는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데 주된 관심을 지녀야 한다.

05

▶ 23058-013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의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의 행위를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에 맞출 수 있을 때에만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행위의 비강압적 조정과 합의를 통한 행위 갈등 해소의 여지가 커진다.

<문제 상황>

○○시의 공무원인 A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이해가 대립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힘들어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폐기물 처리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르세요.
- ②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세요.
- ③ 주민의 사적 이해(利害)를 무시하고 공익만을 고려하세요.
- ④ 시민들 모두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 ⑤ 다른 시도(市道)에서 시행한 행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세요.

06

▶ 23058-013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편협함을 가르치는 어떤 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고, 우리가 살인 혹은 유괴의 선동 혹은 노예 무역의 부흥을 범죄로 간주하듯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① 무제한적인 관용은 관용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 ② 우리가 지녀야 할 관용의 정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관용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도 무제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 ④ 불관용의 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합리적 비판을 부정하고 다른 의견을 박해하는 행위는 저지되어야 한다.

07

▶ 23058-013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 이후 들어갈 막대한 통일 비용이 부담스러워 통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더 큰 통일 편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나 사회적·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통일 비용도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논할 때에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그리고 통일 편익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는 통일 비용을 늘릴 수 있다.
- ② 통일 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분단 비용은 통일 비용과 달리 투자의 성격을 띤 비용이다.
- ④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효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⑤ 통일 비용만을 고려하여 통일을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

08

▶ 23058-0140

같은 긍정, 옳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합치려면 먼저 비교적 쉬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킨 뒤에 정치적 분야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을: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군사적 결단이다. 정치적·군사적 분야에서 일괄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비정치적인 협력도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통일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통일을 저해할 뿐인가?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합의를 우선해야 하는가?
- ③ 통일과 관련하여 정치적 합의 이후에 경제 교류를 진행해야 하는가?
- ④ 통일을 위해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적 과제인가?
- ⑤ 통일과 관련하여 비정치적 교류의 확대 방법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1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1. 국제 관계의 이해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① 현실주의

- 국가는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 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임
-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이며,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임
- 평화는 국제 사회에 불신과 경계가 잔존해도 세력 균형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임

② 이상주의

-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 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서 유래함
-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함
- 평화는 신뢰와 존중 및 협력이 정착된 상태로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 여론, 법률, 제도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음

③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한계점

- | | |
|------|--|
| 현실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력 균형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유발함 • 전쟁과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 •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여 국제 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함 |
|------|--|

- | | |
|------|---|
| 이상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움 • 국제 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려움 |
|------|---|

(2)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① 다양한 국제 분쟁의 원인

- 영역과 자원: 국가 간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 종교적·문화적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타협이나 중재가 어려워 쉽게 분쟁이 발생함
- 인종·민족 차이: 인종이나 민족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차별적 대우로 분쟁이 발생함

② 국제 분쟁의 윤리적 문제

- 지구촌의 평화 위협: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개발해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함
-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훼손: 국제 분쟁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종 청소, 집단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되기도 함

③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

-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동질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함
-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기부의 활성화로 국제적 분배 정의를 실현함

자료와 친해지기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세 가지 확정 조항

◎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 제1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제2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란 영구 평화를 위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조항이다. '제1 확정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는 정치 체제가 공화 정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전쟁에 대한 결정이 군주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을 때 전쟁이 억지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체제가 바로 공화 정제라고 보았다. '제2 확정 조항'에서 핵심 개념은 국제법과 국제 연맹이다. 이는 평화를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를 명시해 평화의 항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칸트는 하나의 주권을 가진 세계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연맹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 확정 조항'에서 칸트는 세계 시민법이 보편적 우호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우호는 한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민으로부터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사람들이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그런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가 세계 시민법이다.

2.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1) 평화의 가치

- ① 평화는 인류가 갈등, 분열, 전쟁이 지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 없이 추구해 온 윤리적 가치임
- ② 평화는 안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임

(2)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 ① 갈등: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소극적 평화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같은 간접적 폭력이 사라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

- ② 칸트: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
 -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함
 -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됨
 -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환대권을 강조함
- ③ 국제 연합: 억압과 차별, 민족 간 분쟁,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집단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함
- ④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평화를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함
- (3)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 ①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
 - ②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와 관용을 실천함

2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1. 세계화에 대한 관점

(1) 세계화(globalization)

- ① 의미: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 ② 세계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갖게 되고,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됨 •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해져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됨 •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어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 • 세계적 문화 교류는 각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문화를 획일화함 • 특정 국가의 권리와 보편 윤리로서의 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 •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짐

- ③ 세계화는 양면성을 지니므로 세계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역화(localization)

- ① 의미: 지역의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상이나 전략
- ② 장점: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 ③ 문제점: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자료와 친해지기 평화에 대한 갈등의 입장

- 폭력은 인간에게 기본적 필요, 보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에 대해서 가해지는 피할 수 없는 상해 행위이다. 즉 잠재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로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의 실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폭력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그러한 폭력은 행위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 갈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갈등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3) 글로벌리즘(globalism)

- ① 의미: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
- ② 장점: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음
- ③ 실현 방안
 - 특정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다른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화하는 방법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에 맞게 변형하여 세계로 확산하는 방법

2.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국제 정의

- ① 필요성: 세계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정의의 실현이 요구됨
- ② 국제 정의의 종류: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음
- ③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비교

구분	형사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의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는 정의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정의
침해 사례	전쟁, 집단 학살, 테러, 납치 등 무고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특정 국가나 계층의 부의 편중으로 말미암은 빈곤과 기아
실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형사 재판소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함 • 국제 형사 경찰 기구를 통해 국제 범죄 수사에 공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선진국이 빈곤 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부의 격차를 줄임

(2)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①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근거

자선의 관점	<p>노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지상주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며, 처분권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
--------	--

의무의 관점	의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음 • 원조를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음
	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임 •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보편적 윤리 기준에 어긋남 • 선(善)의 실천은 곧 도덕적 의무임
	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주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임 •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 • 굶주림과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임 • 세계 시민주의 관점: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함

② 약소국 지원의 윤리적 자세

- 개인적 차원: 지구촌 이웃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기부를 실천해야 함
- 국가적·국제적 차원: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함

자료와 친해지기 원조의 목적과 차단점에 대한 롤스의 입장

자유적 국내 사회에서 부자와 빈자 간의 간격은 상호성의 기준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그들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리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간격을 더 좁혀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만민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적 또는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을 가지게 된다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가 된다면 만민법은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목표, 즉 생활 수준 향상과 같은 목표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간의 물질적인 불평등을 더 축소시키려는 어떠한 요청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롤스, "만민법"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원조의 목적을 사회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01

▶ 23058-0141

(가)는 긍정, (나)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제 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이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우선적 목표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이므로 다른 국가를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식한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힘에 있고, 현실적으로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것이다.

(나)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활동한다. 국가 간 분쟁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대화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 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가?
- ②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 ③ 국제 관계를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 ④ 국가 간 이성적 대화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
- ⑤ 국제 규범을 통해 국가들의 이익 추구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가?

02

▶ 23058-014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는 언제나 권력 획득을 통해 그것을 달성하려 한다. 그런데 현상을 유지하려 하거나 타파하려는 여러 국가의 권력욕은 반드시 세력 균형이라는 상태를 낳고 또 그것을 유지, 보존하려는 정책을 낳는다.

보기

- ㄱ.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권력 정치를 끝낼 수 있다.
- ㄴ. 세력 균형은 국가 간 전쟁을 억지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ㄷ. 권력 투쟁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 ㄹ. 세력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3

▶ 23058-014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공평한 방식으로 시험해 볼 때,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는 거의 없으며, 우리에게서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국민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에 있는가?
- ㄴ. B: 원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조 대상 국가를 선정해야 하는가?
- ㄷ. C: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모든 국가가 원조 대상이 되는가?
- ㄹ. C: 원조를 통해 세계 각 국가들의 부와 복지 수준을 좁혀야만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4

▶ 23058-0144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기아,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높은 유아 사망률 등을 나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 ①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원조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원조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 ③ 원조는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원조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 의무이므로 원조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원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05

▶ 23058-014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조의 의무 실행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가 극히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질서 정연한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정치 문화를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없다. 돕는 방법으로 강제력은 배제되며, 자금 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종류의 충고는 유용할 수 있다. 분배 재원만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강조는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정치 사회 제도의 개선에 있다.
- ② 원조 대상국에 제공된 원조에 대한 조건으로 인권 존중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인권 강조는 기아로 인한 고통 방지에 도움이 된다.
- ④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천연자원의 부족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이다.

06

▶ 23058-0146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서 결정적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이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의 수준이 아니다. 만민법을 위한 분배 정의의 지구적 원칙이 극단적인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호소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원조의 의무가 충족된 이후의 세계에도 끝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호소에는 문제가 있다.

을: 생산이 더 이상 자급자족적이지 않고 국가 간 무역과 용역의 유통이 있는 경우, 지구적 협력 체제가 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지구적 차등 원칙, 즉 국내에서 적용된 차등의 원칙과 유사한 원칙이 사회들 간의 분배 정의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부유한 나라들은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훨씬 많은 자원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이다.

- ① 차등의 원칙 적용이 원조 의무의 최선의 방법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원조 대상 국가 국민의 정치적·시민적 덕목은 중요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③ 국제 사회도 국내 사회처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협력 체계임을 간과한다.
- ④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어도 원조는 지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원조의 목적은 천연자원의 우연성에 따른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07

▶ 23058-0147

을 사상가가 갑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원조에서 대상 국가의 정치 문화는 중요하다. 원조 의무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를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을: 원조에서 정치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는 모든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나라에 사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대응은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려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훨씬 더 급박한 문제이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복리 증진에 있다.

- ① 정치 문화의 개선이 절대 빈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원조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 ③ 국민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대상 국가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원조 대상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 없음을 간과한다.
- ⑤ 정치 문화의 개선보다 당장 기아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함을 간과한다.

08

▶ 23058-014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화 연맹은 평화 조약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인 반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합니다. 계몽된 국민이 형성한 공화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연맹적 통일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 연맹을 떠날 수 없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을 좇아 자유 상태를 확보하게 하며, 결국 이러한 종류의 결합이 점차 강화될수록 연맹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기

- ㄱ.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 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를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ㄷ. 주권적 권력을 지닌 국제 연맹만이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가져온다.
- ㄹ. 각 국가는 국제법에 의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9

▶ 23058-014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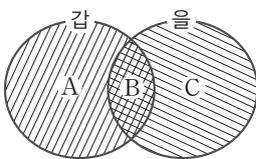
어떠한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며,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적극적 평화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 ①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② 적극적 평화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임을 알아야 한다.
- ③ 구조적 폭력의 제거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 ④ 전쟁의 완전한 종식만이 모든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 ⑤ 직접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을 지닌다.

10

▶ 23058-015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시민법과 국제법의 발전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p> <p>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우리의 기본적 욕구인 생존과 복지와 자유와 정체성에 접근한다.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분열 대신 결속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바꿀 수 있으며, 종교, 법,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대학, 언론 등이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각 국가가 공화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영원한 평화가 실현된다.
- ㄴ. B: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은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
- ㄷ. B: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 체제의 수립이 평화 실현을 위해 요구된다.
- ㄹ. C: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만 이루면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8-0151

1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도덕 원리에 대 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뇌사, 동물 실험, 사형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문제들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실 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병: 윤리학은 '안다', '참인', '옳다'와 같은 도덕 언어가 지닌 의 미를 규명하고 도덕적 논의의 논리적 구조를 밝혀야 한다.

- ① 갑: 도덕 원리의 탐구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이 중요하다.
- ② 을: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일 뿐이다.
- ③ 병: 도덕규범을 정립하여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당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 ⑤ 을과 병: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을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 23058-0152

2 다음 가상 편지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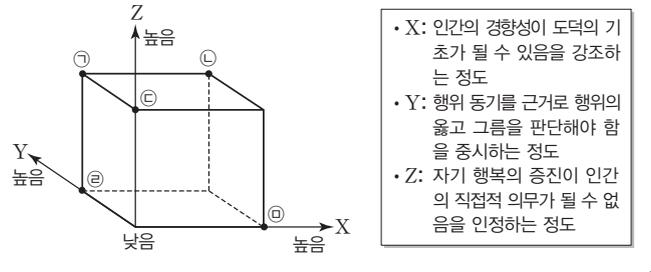
○○에게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사회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네. 오늘 날 MZ세대는 최신 유행을 주도하는 세대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 람들은 MZ세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네. 그러나 어떤 사물도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 이 없으니 도(道)에는 본디 경계가 없고 말에는 본디 일정함이 없다네. 그러므로 모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지극한 것이며, 이 것과 저것의 대립을 해소하게 되면[道樞]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다네. 따라서 ㉠

- ① 세대를 분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도의 관점에 어긋남을 인 정해야 하네.
- ② 주도 세대에 대한 정의는 지식을 피하는 것으로 혼란의 원인 임을 명심해야 하네.
- ③ 특정 세대에 대한 인위적 규정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네.
- ④ 유행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유행을 알려 줌으로써 더 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네.
- ⑤ 특정 세대를 추종하려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도에 어긋나는 것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하네.

▶ 23058-0153

3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 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은 쾌락이자 고통의 결여이다. 공리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종속 을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 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로 가정한다. 공리는 양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 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8-0154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3점]

인간은 성(聖)과 속(俗)이라는 두 개의 우주를 아울러 살아간다. 속이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의해 방향 지어지는 일상적 삶을 말 한다면, 성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상적 우주에 서의 존재 양식을 말한다. 성과 속은 공간적으로는 성역(聖域) 과 속세(俗世), 시간적으로는 성시(聖時)와 속시(俗時)로 존재한 다. 인간이 이중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성역과 속세에 동 시에 발을 딛고 성시와 속시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종 교적 인간이 속세와 속시에서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이라 면, 비종교적 인간은 성역과 성시의 존재를 애써 망각하려고 하 는 인간이다.

보기

- ㄱ. 성과 속의 공존이 아닌 단절을 지향해야 한다.
- ㄴ.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은 성현(聖顯)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 ㄷ. 성 그 자체는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며 속을 초월해 존재한다.
- ㄹ. 종교적 인간은 성의 시간과 속의 시간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155

5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동물은 공동체를 위한 도덕규범의 고안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적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물은 도덕적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지각,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 미래에 대한 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권리가 있습니다.

갑: 아닙니다. 동물은 모두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니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삶의 주체들은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를 입거나 다른 존재를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됩니다.

- ①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②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 동물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의 이익 관심 충족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 ④ 도덕적 행위 능력이 결여된 존재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부여될 수 없는가?
- ⑤ 동물의 도덕적 권리의 소유 여부가 동물 실험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23058-0156

6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옳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화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킵니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렴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이 공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 공화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연맹적 통일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 연맹을 떠날 수 없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을 좇아 자유 상태를 확보하게 하며, 결국 이러한 종류의 결합이 점차 강화될수록 연맹은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 ㄱ.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하는가?
- ㄴ. 국제법 체제하의 국가들은 자국 방어를 위한 평화의 권리를 갖는가?
- ㄷ. 전쟁의 위협이 있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맹의 확산이 요청되는가?
- ㄹ. 평화 조약으로 국가 간 전쟁이 종식되면 영구적 평화 상태의 실현이 보증되는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23058-0157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각 사람은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 중에 자기의 성향에 천성적으로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인간의 본성을 실현한 사람은 대인(大人)이 되고 육체적 욕구를 좇는 사람은 소인(小人)이 된다.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음을 쓰고 어떤 이는 몸을 쓴다.

병: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의에 맞지 않으면 서인(庶人)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하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을 하게 해야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 ① 갑은 각자 본분에 맞는 탁월성의 발휘가 국가에 해가 된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사람이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다.
- ③ 병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관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교육으로 성향을 변화시켜 직업 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병과 달리 욕구 충족과 무관한 직업 생활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 23058-0158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행에는 일반적이고 동일한 것을 향한 경향과 특수하고 유일한 것을 향한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유행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려는 삶의 형식들 중 하나인 것이다.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른 한편 유행은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상류 계층은 유행을 창출함으로써 그 구성원들 간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하류 계층이 유행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하자마자 상류 계층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

- ① 개인은 유행을 따름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② 하류 계층은 상류 계층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행을 창출하는가?
- ③ 유행이라는 삶의 형식 안에 개체성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하는가?
- ④ 유행에는 개인의 모방 욕구와 차별화 욕구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⑤ 하류 계층은 상류 계층이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시민 불복종은 정부 정책이나 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의 입장이라 해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일 때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p> <p>을: 시민 불복종은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다.</p>
(나)	

- ① A: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② A: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 ③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국가에서 제정된 법일지라도 그 법이 부정의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C: 시민 불복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⑤ C: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항거이므로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10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술의 가장 은밀한 성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술의 진정한 목적은 거짓말, 즉 사실이 아닌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예술은 순전히 자신의 영역만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을: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게 된다.

- ① 미적 판단은 보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판단인가?
- ② 미적 체험은 도덕성 실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③ 예술의 영역은 도덕의 영역에 종속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가?
- ④ 미적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보편적 만족을 불러올 수 없는 작품이라도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11 다음 신문 칼럼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

남북한 분단이 길어질수록 북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민족의 재결합을 강조하는 과거의 당위적 접근보다 실제 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통일 초반에는 통일 비용으로 인해 그 편익이 두드러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은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비경제적 측면에까지 이득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한 대결 비용이 해소됨은 물론이고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비경제적으로는 국제 위상 상승과 남북한 통합으로 인한 문화 발전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짐을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통일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략).

- ① 통일 편익의 강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야
- ② 통일 편익이 장기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위험성을 경계해야
- ③ 통일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당위적 접근과 상통함을 강조해야
- ④ 통일이 교역 확대 차원이 아닌 분단 해소 차원에서 이익이 됨을 중시해야
- ⑤ 통일은 경제적 측면과 달리 비경제적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와 보살핌 간의 대화는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고 발달의 진실이 갖는 맥락적 성격을 환기시킨다. 이와 같은 확장을 통해 우리는 성인 발달을 설명할 때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대해 더욱 생산적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기

- ㄱ. 보살핌의 윤리는 원리와 규칙보다 책임과 관계를 중시한다.
- ㄴ. 도덕 판단에서 성차(性差)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ㄷ. 보살핌은 단순한 심리적 사실을 넘어 도덕 원리로 성립될 수 있다.
- ㄹ.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맥락적 사고보다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163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 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을: 사형에 처할 만큼 중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이 사람은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병: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보기

- ㄱ. 을: 살인자는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이므로 국가와 더불어 존립할 수 없다.
- ㄴ. 병: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있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지켜질 수 있다.
- ㄷ. 갑과 을: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ㄹ. 갑과 병: 살인자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164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을: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된 이러한 원칙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 ① 갑은 을과 달리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어떤 재화는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공정한 절차를 따를 때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허용된다고 본다.
- ④ 갑과 을은 자신의 노동과 무관하게 취득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하므로 부정의하다고 본다.

▶ 23058-0165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이 도구라는 말로는 기술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기술은 사물을 탈은폐시킴으로써 사물의 존재를 규정한다. 무엇보다 현대 기술의 탈은폐 활동은 인간을 부품의 요청자인 동시에 부품이 되어 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기술이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는 것을 간과한다고 본다.

- ①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②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③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볼 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 ④ 기술은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존재이다
- ⑤ 기술의 도구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 기술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

▶ 23058-0166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p> <p>을: 모든 사람이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 공동 사회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탁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범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자연 상태가 언제라도 전쟁 상태로 변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 소유권이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③ A: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이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자연 상태의 평화 유지를 위해 자연권을 양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자연 상태로의 복귀는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때만 가능함을 간과한다.

▶ 23058-0167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떡갈나무는 비록 뿔감으로 쓰이지만 생태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존재의 삶을 위한 자원이다.

을: 개나 말의 주인에 대한 봉사에 관해 주인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이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병: 어떤 포유동물은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특성을 소유한 삶의 주체이다. 이러한 개체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이성적 존재 외에도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는가?
- ② A: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B: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 개체들에게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 ④ C: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는가?
- ⑤ D: 내재적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 중 일부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가?

▶ 23058-0168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육체는 늙고 노쇠하면 마땅히 사멸하는 과보(果報)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요한 열반을 구해야 한다.

을: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 ① 갑: 죽음은 삶에서 비롯되므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② 갑: 깨달음을 통해 삶의 번뇌가 모두 소멸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 ③ 을: 죽음은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어 불멸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을: 모든 사람 중에 죽음을 가장 덜 두려워하는 사람은 철학자이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사유도 할 수 없다.

▶ 23058-0169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을: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적이나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실현을 강조해야 한다.
- ㄴ. 갑: 원조의 목표는 사회 구조 개선이 아닌 국가 간 부의 불평등 해소이다.
- ㄷ. 을: 원조의 목표를 빈곤의 해결이 아닌 예방에 둬으로써 빈곤이 초래할 고통을 줄여야 한다.
- ㄹ. 갑과 을: 원조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경제 수준을 일치시키는 데 도달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23058-0170

2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모든 소통 행위가 공통적인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론 및 담론과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소통의 적절성은 수용되고 반박되는 의사소통적 타당성 요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의 소통은 발언의 이해 가능성, 진술의 진리성, 언어 행위의 정당성, 표현의 진실성이라는 타당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나)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합니다.
- ② 사실과 발언이 일치하도록 하여 참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③ 감정과 소망을 배제하고 말함으로써 발언을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④ 고립된 주관성을 뛰어넘어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 ⑤ 주장의 내용이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8-0171

1 (가), (나) 윤리학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 천적 규범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 규칙 외에도 도덕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지식도 알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 서 기술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원리를 근거로 문제의 실천적 해결 방안의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 ② (가): 도덕 진술의 논리적 구조나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
- ④ (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도덕적 품성 탐구에 집중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 23058-0172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 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협동적 진리 탐구에 참여한다는 사실 을 전제해야만 한다.
-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 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즉 타당성에 기반하여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타당성은 사실성, 정 당성,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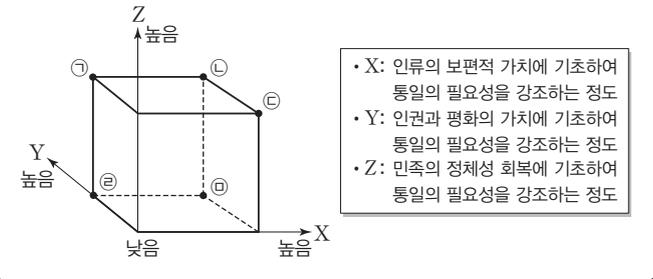
- ① 담론 참여자의 자격을 공직자와 행정 전문가로 제한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들의 선호를 모두 배제할 때 타당한 규범이 도출 된다.
- ③ 비강제적으로 수용된 보편타당한 규범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담론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 ⑤ 담론의 참여자들은 다수가 합의한 규범에 조건 없이 승복해 야 한다.

▶ 23058-0173

3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남북 분단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던 민족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혔다. 통일은 단절된 민족 공동체의 맥을 다시 이어 가기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하고,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을: 남북 분단은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과도한 군 비 경쟁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악 순환을 낳는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보다 전쟁의 공 포를 없애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8-0174

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진실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지상 에 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과학자는 자기 연구의 결과가 인간 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을: 과학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성향을 대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또 과학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려고 해야 한다. 과 학자는 파당을 떠나 중립적 관찰자로 남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과학자는 자기의 연구 책임 범위에 인류의 미래를 포함 해야 한다.
- ㄴ. 을: 과학자는 자기의 연구가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신 중해야 한다.
- ㄷ. 을: 과학자는 연구 대상에 대해 주관적 가치 평가를 배제해 서는 안 된다.
- ㄹ. 갑과 을: 과학자는 자기 연구 행위와 관련해 연구 윤리를 준 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23058-0175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대인(大人)이나 소인(小人)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직공들이 할 일을 모두 갖추고 있어, 만약 한 가지 물건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을 피곤하고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을: 사람들의 덕(德)을 따져 지위의 차례를 정하고, 능력을 해아려 벼슬을 주며, 현명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모두 그에 알맞은 지위를 얻게 하여 예의(禮義)와 법도(法度)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백성이 인륜의 덕을 갖추게 한 다음 물질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ㄴ. 을: 예의에 합당하면 서민의 자손도 관직을 부여해 일하게 해야 한다.
- ㄷ. 갑과 을: 덕과 재능을 지닌 자를 임용해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임금은 농업과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8-0176

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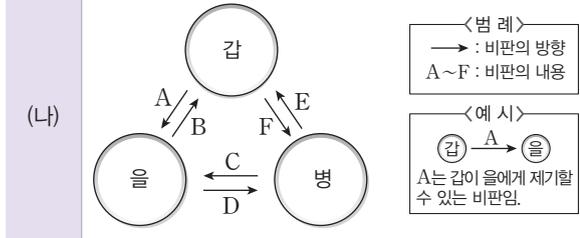
인간으로서 존재함은 신(神)을 찬미할 유일한 기회이다. 인간의 생명은 완전히 신의 섭리이고, 신의 위탁물이며, 신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의 본질은 신으로부터 유래했고, 인간은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식(生殖) 행위에 의한 임신도 신의 섭리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식 행위에 따른 임신 및 태아의 성장과 지속 여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고 생각한다.

- ①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 방어권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태아는 신의 섭리와 무관한 생식 행동의 자연적 결과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④ 인공 임신 중절을 결정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의 생식 행위가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섭리와 불가분의 것임을 간과한다

▶ 23058-0177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주변의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명확하게 알아서 장인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을: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병: 인종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그리고 종(種) 차별주의는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지능이나 합리성이 도덕적 고려를 위한 유일한 경계일 수는 없다.



- ① A: 동식물, 흙이나 물, 대지 그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인식 대상이 아닌 인식 주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③ C: 생명을 지닌 모든 구성원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④ D, F: 쾌고 감수 능력이 개체의 도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유일한 기준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E: 도덕적 행위나 책임 능력을 결여한 존재는 도덕적 지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23058-0178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은 밖으로 나가서는 적을 정벌하고 별을 줄 수 있으며, 안으로 들어와서는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禮)를 지킬 수 있게 해 준다. 또 음악을 중요에서 임금과 신하,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함께 들으면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되고, 집에서 부자와 형제들이 함께 들으면 화합하고 친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음악은 즐기는 것[樂]으로 사람의 자연적 감정에 부합한다.
- ② 음악은 사람의 성격과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 ③ 음악은 백성의 마음을 어질게도 하지만 어지럽힐 수도 있다.
- ④ 예악(禮樂)이 바르고 성대한 것은 선왕의 도(道)에 부합한다.
- ⑤ 음악은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통치의 수단으로는 유용하다.

▶ 23058-0179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들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그것들이 평등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며, 최초의 상황은 손수하게 가상적인 것이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각자의 천부적 재능은 응분의 자격에 의한 정당한 몫인가?
- ㄴ. B: 무지의 배일의 당사자들은 사회 조직의 기초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가?
- ㄷ. B: 각자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가?
- ㄹ. C: 소유 자격이 있는 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180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평화를 위해서는 민족 상호 간에 특수한 종류의 연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한곳 하나의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평화 조약과는 달리 모든 전쟁을 종식하려는 것이다.
 을: 평화는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합쳐진 것이다. 평화는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시험할 수 있고, 갈등을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① 갑: 평화 상태는 민족 상호 간 계약에 의한 연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② 갑: 국가는 도덕적 인격체이므로 다른 국가에 의한 합병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을: 문화적 폭력은 착취와 억압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게 만든다.
- ④ 을: 문화적 폭력은 종교나 법이 아닌 예술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 ⑤ 갑과 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같은 직접적 폭력의 배제가 필요하다.

▶ 23058-0181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신(神)들과 교섭이 가능한 곳, 즉 중심에 거주하기를 소망한다. 그의 거주지는 소우주이며 그의 신체도 역시 그러하다. 신체-집-우주의 동일시는 인도의 종교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서 신체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존재 조건의 체계이다. 등뼈는 우주의 기둥, 호흡은 바람, 배꼽 혹은 심장은 세계의 중심과 동일시된다. 또한 인도의 탐 위쪽의 출구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이곳을 향해 날아가도록[飛上]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고대 종교에서 비상은 초인간적 존재의 양식으로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자신을 열어 보여 줄 능력을 갖고 있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소멸로 파악한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우주와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거주 공간인 집을 통해 거룩함의 체험을 소망한다.
- ④ 종교적 인간이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이다.
- 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을 개현(開顯)할 능력을 지닌다.

▶ 23058-0182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최선의 정치 체제란 그것에 의해 폴리스가 최선으로 통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폴리스를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치 체제에 의해서 최선으로 통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무관할 수가 없다.
 을: 코먼웰스를 설립한 사람들은 신약(信約)에 의해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의 허락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신약을 맺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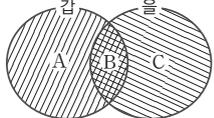
보기

- ㄱ.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완전한 자족적 공동체이다.
- ㄴ. 을: 자연 상태에서는 공동 소유만 있을 뿐 사적 소유권이 확립될 수 없다.
- ㄷ. 을: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며 정의가 아닌 불의가 지배한다.
- ㄹ. 갑과 을: 통치자의 권력은 신(神)에 의해 주어졌 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58-0183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정의에 반하며, 사회 계약의 본질과도 상반된다.</p> <p>을: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범죄자로부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 ㄴ. B: 살인자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 ㄷ. B: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형벌의 남용은 안 된다.
- ㄹ. C: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8-0184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해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 ① 노동은 소명(召命)이므로 직업적 성공을 위해 성실하게 해야 한다.
- ②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해 노동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 ③ 노동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의 분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④ 노동에 의한 소외는 능력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 ⑤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므로 인간에게 노동은 자기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3058-0185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점이 곧 자신의 모든 죽음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치병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 환자의 죽음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말기 불치병 환자와 노년기에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죽음 선택권도 허용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의사에 의한 적극적 방식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을: 자연적 죽음이라는 성격을 지닌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에 의한 약물 주입 등의 방식은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① 말기 불치병 환자의 죽음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 ② 환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③ 의사는 환자의 자기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거부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율성을 지니는가?
- ⑤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이 될 수 있는가?

▶ 23058-0186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떤 개체가 믿음과 욕망, 지각과 기억, 쾌고를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삶을 산다면, 선호 및 복지와 관련된 이익을 갖는다면, 또 다른 존재의 유용성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거나 못산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을: 인종 차별주의는 인간의 인종 집단 사이에 어떤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생물종(種), 예를 들어 인간과 쥐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크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인종 차별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① 갑: 동물은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② 갑: 동물의 도덕적 권리는 인간과 동물 상호 간의 호혜적 의무에 근거한다.
- ③ 을: 동물은 도덕과 무관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 ④ 을: 동물은 생존이나 고통의 회피, 욕구 충족 같은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동물 실험의 정당성 여부의 유일한 기준은 감각 능력의 유무이다.

▶ 23058-0187

17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性)적 자유와 성적 책임은 사랑으로 절충할 수 있다.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성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야 한다. 즉 인격 존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을: 성적 활동은 잠재적으로 출산의 가능성을 함축하므로 양육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제약 아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은 책임 있는 성의 안전한 보루이다.

- ① 성적 행위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가 중요한가?
- ② 결혼이나 출산과 무관한 성적 행위도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가?
- ③ 정당한 모든 성적 행위의 도덕적 근거는 당사자 간 자발적 계약인가?
- ④ 성적 쾌락의 충족을 위한 사랑이 없는 성적 행위도 정당할 수 있는가?
- ⑤ 성적 행위에서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해악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 23058-0188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와 관련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똑같은 책임을 갖는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조의 책무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을: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 ① 갑: 원조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지닌 개인의 적선 행위일 뿐이다.
- ② 갑: 원조는 무조건적 도덕 명령이므로 원조의 책무는 모두에게 양적으로 동일하다.
- ③ 을: 원조 대상국의 선정은 가상의 원조적 상황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 ④ 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적 자율성을 지닐 때까지 유효하다.
- ⑤ 갑과 을: 원조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들의 복지가 아닌 사회의 정의에 두어야 한다.

▶ 23058-0189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은 둘 사이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인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 그것이 의욕하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을: 덕(德)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며, 인격적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의 통일성이 요청하는 성격의 통일성에 의해 전제되는 정체성이다. 나의 현존재는 어느 정도는 나의 현재 속에 현재하고 있는 특수한 과거의 것이다. 나는 전통의 담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보기

- ㄱ. 갑: 의무 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모두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이다.
- ㄴ. 을: 유덕한 품성에서 나온 행위는 구체적 맥락과 상관없이 도덕적이다.
- ㄷ. 을: 행위자의 품성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실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ㄹ. 갑과 을: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모든 행위는 동기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8-0190

20 갑, 을 사상가들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삶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이므로 이를 깨닫고 근원인 도(道)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물(物)은 대인이든 하찮은 존재이든 똑같이 일기(一氣)의 변화이다.

을: 이익을 보고 의를 생각하며[見利思義],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에 평소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하는가?
- ②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수양해야 하는가?
- ③ 차별 없는 정신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한가?
- ④ 죽음[喪]에 대해서는 애도보다 관례적 의례를 따라야 하는가?
- 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이므로 초연해야 하는가?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8-0191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입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 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 이 ㉠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은 사회의 관습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윤리학은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엄밀하게 탐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윤리학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윤리학은 현대 사회의 여러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23058-0192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도덕주의자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 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 이 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요소들을 파악 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했다. 또한 그들은 계급 주의 형태나 계급 지배 형태에서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 ①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가진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②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 갈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선의지만으로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 ④ 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이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없다.
- ⑤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며 집단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 23058-0193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갑: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즐거움을 만 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 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면, 도덕 또는 어떤 합리적 행동도 행복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을: 행복주의자는 의무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유덕하게 행위 하 는 본래적인 동인이라고 본다. 내적 법칙 수립의 자유 원리 대신에 행복 원리가 도덕 원칙으로 세워진다면 그 귀결은 모든 도덕의 조용한 죽음이다.

보기

- ㄱ. 갑: 우리 삶에서 쾌락과 고통은 항상 분리되어 존재한다.
- ㄴ. 을: 도덕 법칙은 경험적인 원칙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ㄷ. 을: 도덕 명령은 인간에게 언제나 실천적 강제이자 의무이다.
- ㄹ. 갑과 을: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도덕적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3058-0194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희망은 모든 행위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쉬우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 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 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 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의적으로라도 더 많은 천리안적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을 동원해야만 한다. 즉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 ① 과학 기술은 현세대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윤리 이론은 선함의 표상이 아닌 악의 표상을 갖춰야 한다.
- ③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일방적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희망뿐만 아니라 공포도 책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우리에게서 현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 23058-0195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화란 창조적 갈등의 변형이 비폭력적으로 발생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는 어떠한 일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맥락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푸딩은 먹어 보아야 증명할 수 있고, 결혼은 생활이 어려워질 때 시험할 수 있듯이, 평화는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시험할 수 있다. 행위자들은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갈등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 평화는 혁명적 명제이다.

보기

- ㄱ.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 ㄴ. 문화가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는 없다.
- ㄷ.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지만 평화는 또 다른 평화를 낳지 못한다.
- ㄹ.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폭력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8-0196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거의 모든 과시적 소비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소비를 부추기는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반면, 과시적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은 값싼 동기에 휘둘리는 인색한 노랑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이런 과시적 소비의 동기는 경쟁, 우리가 스스로 습관적으로 따르는 계급 분류 기준을 능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차별적인 비교 관행이 자극하는 경쟁이다.
- 과시적 소비의 진화 과정 전체를 돌아볼 때, 재화든 용역이든 어느 것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더라도 그 소비가 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치품을 소비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낭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마저 자제해야 하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과 비교될 경우를 제외하면 하류 계급은 생활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명성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 ① 사회적 명성 획득의 방법에 사치품의 소비가 포함되는가?
- ② 과시적 소비는 재력 비교의 동기가 유발한 소비 관행인가?
- ③ 사람들의 차별적 비교 관행은 과시적 소비를 더욱 부추기는가?
- ④ 과시적 소비 경쟁은 하류 계급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인가?
- 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재화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 23058-0197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p> <p>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게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Legend: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 ㄱ. A: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부정의한 법을 바꾸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가?
- ㄷ. C: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경고가 아닌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ㄹ. C: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23058-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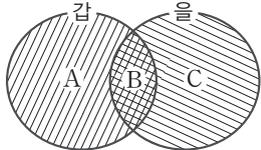
8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받아서 안 됩니다.

- ①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담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② 인간은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자신의 주장 외에도 개인적인 바람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 ④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 보편적 규범이 성립될 수 없다.
- 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

▶ 23058-0199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길이 없다. 그가 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원칙을 재원칙으로 인정하는 일이다.</p> <p>을: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역사적 소유 원리에 의거한 정의관도 옳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 양도, 그리고 교정의 원리로부터 드러나는 어떠한 집합의 소유 상태도 정의롭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천부적 재능의 분포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정적이다.
-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 ㄷ. B: 사회적 불평등의 조정을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부정적이다.
- ㄹ. C: 국가에 의한 모든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23058-0200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해와 달은 본래의 밝음이 있고, 못별은 본래의 질서가 있으며, 금수는 본래부터 무리를 짓고, 수목은 본래부터 서 있다. 천지의 덕(德)에 따라 행하고 도(道)를 좇아 나아가면 이미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인의(仁義)를 들고 다니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 ① 이상적인 삶을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하는가?
- ②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 ③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잇는[坐忘] 수양이 필요한가?
- ④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하는가?
- ⑤ 쓸모 있음과 없음의 분별은 도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가?

▶ 23058-0201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덕이 없으면 가장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탐욕과 무절제한이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하다. 사람은 국가의 정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 정의를 정치 공동체가 실현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을: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① 갑: 개인의 국가에 대한 복종은 인간 본성에 부합한다.
- ② 갑: 인간의 좋은 삶은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③ 을: 국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절대 권력체이다.
- ④ 을: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지닌다.
- ⑤ 갑과 을: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모든 시민이 지니는 의무이다.

▶ 23058-0202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살을 불행한 삶 또는 수치스러운 죄를 피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가장 끔찍한 악은 죽음이기 때문이며,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권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을: 자살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이 죽음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실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왜냐하면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자살은 자신을 포기하는 실수이다.

보기

- ㄱ. 갑: 자살이 악인 이유를 인간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 ㄴ. 갑: 자살은 자기 보존을 거스르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 ㄷ. 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 ㄹ. 갑과 을: 자살은 신에 대한 복종의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23058-0203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제 사회에서 전쟁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물만이 법을 혐오하는 적대적인 경향성의 흐름을 중지시킬 수 있다.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

을: 국제 사회에서 평화는 다음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인데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권력 투쟁을 평화로운 범주 내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 같지 않다.

- ① 갑: 영구 평화를 위해 다수의 국제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
- ② 갑: 영구 평화를 위해 공화 정체의 수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③ 을: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은 영구 평화를 보장한다.
- ④ 을: 개별 국가의 행위 기준으로 국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 ⑤ 갑과 을: 국가 간 평화 조약은 어떤 전쟁도 종식시킬 수 없다.

▶ 23058-0204

14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하려 하네. 늙음은 청춘을 부수어 아름다움을 없애고, 병은 건강을 부수고, 죽음은 목숨을 부수고, 항상(恒常)하다고 믿는 모든 것은 덧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데, 중생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에 집착하여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 때문에 고통에 빠진다네. 그러니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緣起)를 깨달아야 하네. ... (후략).

보기

- ㄱ. 만물의 실상(實相)을 바로 보지 못하면 번뇌가 생긴다.
- ㄴ. 계·정·혜(戒定慧)의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ㄷ. 영원불멸의 영혼이나 만유의 본체인 절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ㄹ. 인간은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05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교에서 인간이 자신의 두뇌의 산물에 의해 지배되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인간은 자신의 손의 산물에 의해 지배된다. ... (중략)...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이고, 산 노동에 대한 죽은 노동의 지배이며,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이다. 결국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 ①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 ②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 사회에서 노동의 본질 실현이 가능하다.
- ③ 자본주의에서 생산물의 향유만으로 노동 소외 극복은 불가능하다.
- ④ 자본주의에서 분업에 의해 노동자의 생산성과 자율성이 향상된다.
- 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 수단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이다.

▶ 23058-0206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의 고통을 쓸모없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없었다. 중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효과가 있다.</p> <p>을: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해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p> <p>병: 형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어긋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법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보기

- ㄱ. A: 국가는 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음 간과한다.
- ㄴ. B: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입법의 근본 원리여야 함을 간과한다.
- ㄷ. C, E: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자 처벌에 있음을 간과한다.
- ㄹ. D, F: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형벌도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8-0207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식물이나 동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반면에 돌은 그렇지 않다. 돌에는 고유의 선이 없다. 야생 생명체의 선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행동할 때에만 자연을 존중하는 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을: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물이나 대지도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장하는 것이 대지 윤리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인 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보기

- ㄱ. 갑: 야생 생명체의 선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의 한 측면이다.
- ㄴ.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모든 개별 유기체는 인간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 ㄷ.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린 것이 아니다.
- ㄹ. 갑과 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3058-0208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잘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못사는 나라에도 수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도 또한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해야 한다. 누구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 ① 갑: 원조 대상국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없다.
- ② 갑: 원조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도록 행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만민이 지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없다.
- ④ 을: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권고와 강제력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원조 주체가 반드시 막대한 부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 23058-0209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음악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사람에게 크나큰 고통은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추울 때 입지 못하며, 일에 지쳤을 때 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피리 불면서 백성이 먹고 입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을: 사람에게 음악은 없을 수 없다. 우아한 아(雅)·송(頌)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과 뜻이 넓어질 수 있다. 음악은 밖으로는 적을 정벌하고 벌을 줄 수 있으며, 안으로는 서로 공손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어찌 음악을 부정할 수 있는가?

◎ 학생 답안

음악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음악의 쓸모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음악은 장기적으로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본다. 을은 ㉢예(禮)로는 사람의 행동과 겉모습을 규제하고 음악으로는 사람의 성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며, ㉣음악은 천하에 질서를 세우고 사회를 조화시킬 수 있어 임금의 훌륭한 통치 수단이 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음악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8-0210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할 때,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즉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인 이해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 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 ②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동일하며 성차는 존중해야 한다.
- ③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구별하는 인식은 불필요하다.
- ④ 남성의 경험이 모든 인간의 경험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 ⑤ 여성은 정의의 도덕성이 아닌 배려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8-0211

1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 고,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핵심 과 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옳고 그름 및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도덕적 행 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규범 및 도덕 원리의 체 계를 제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다)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도덕 판단과 행위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 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는 도덕규범을 탐구 대상이 아닌 실천 지침으로 간주한다.
- ② (나)의 연구만으로는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가)는 (나)에서 사용하는 전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④ (나)의 이론은 (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될 수 있다.
- ⑤ (나)와 (다)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 23058-0212

2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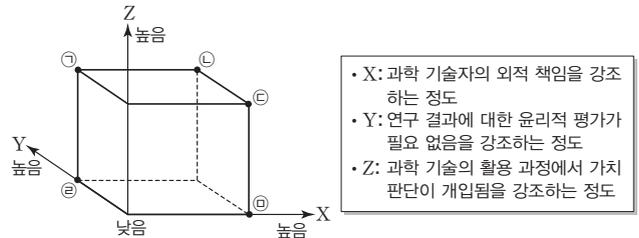
갑: 도덕 법칙을 이성 위에 정초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우리 는 ‘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보다는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을: 도덕 법칙은 비록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존경을 받는다. 이 법칙 앞에서 모든 감성적 경향은 비록 은밀하게는 그것 에 저항하겠지만 결국은 침묵하고 만다.

- ①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선한 동기가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자연적 감정도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한다.
- ③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판단에서 맥락적 사고보다 보편적 도덕 원리가 중요함 을 간과한다.
- ⑤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23058-0213

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 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과학 기술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 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 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과학 기술 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8-0214

4 갑 사상가는 부정, 을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드러내는 것이 고,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 입니다. 이를 위해 예술가는 무엇이든 지 표현할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 윤리 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매너리즘일 뿐입니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 며, 쾌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 다. 예술가는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거나 사랑의 침해에 대한 분노를 예술 작품을 통해 전 달해야 합니다.



- ① 예술가는 악덕도 예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 ② 예술가는 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가?
- ③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미적 가치를 표현해야 하는가?
- ④ 예술가는 예술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 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감상자가 도덕적 감정을 함양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는가?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을: 생명 중심 관점은 자연 존중의 태도를 정당화한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병: 대지 윤리는 생태학적 도덕의식의 존재를 반영한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며,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나)

- ① A, F: 이성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유정적(有情的) 존재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인간이 생명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생태계의 온전성이 개별 유기체의 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인간을 위한 경제적인 자원으로 동물을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죽음으로써 선한 도를 지켜야 한다. 뜻있는 선비와 인(仁)한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을 이룬다.
 을: 진인(眞人)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다가, 잊어버린 채로 되돌아간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 ① 갑: 죽음 이후보다 현세에서의 인간다움 실현이 중요하다.
- ② 갑: 상례(喪禮)를 통해 죽은 자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
- ③ 을: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을: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과 죽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 ⑤ 갑과 을: 죽음은 자연적인 과정이지만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가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타인들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병: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 ② 을: 강력한 인상을 일시적으로 주는 형벌이 가장 효과적이다.
- ③ 병: 형벌이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 ④ 갑과 을: 사회 계약을 통해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을과 병: 형벌은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의 이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차츰차츰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정치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합치되어야 한다.	V	V		V	
국제법은 모든 국가들의 독립성을 전제해야 한다.	V			V	V
외국인은 우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V	V		V
영원한 평화를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23058-0219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이에 자네에게 몇 가지 당부할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네.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먼저, 선물로 보낸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 한다네.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건 하나라도 버림이 없게 써야 한다네. 또한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바꾸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좇아서 잃지 말도록 해야 하네. 더불어 불구자와 중환자는 신역(身役)과 같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네. ... (후략)

- ① 사사로운 이익에 이끌리지 않도록 청렴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② 백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이라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③ 애민(愛民)을 실천하는 경우에도 모든 물건을 항상 아껴야 한다.
- ④ 관습적으로 따르던 업무 절차는 이치에 맞더라도 바꾸어야 한다.
- ⑤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23058-0220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한갓된 파괴의 성벽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동물 학대는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비도덕적인가?
- ㄴ. 동물 학대는 동물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가?
- ㄷ. 동물 학대는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 소질을 약화시키는가?
- ㄹ. 동물 학대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21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비치료적 목적의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녀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유전학적 개입, 즉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설계자가 되는 순간 불가피하게 그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해 상호성이 성립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평등성을 침해한다.

- ① 출생은 자연적 사실이 아닌 인간의 통제 대상이어야 한다.
- ②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유전학적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자유주의적 근거를 통해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반대할 수 없다.
- ④ 부모는 자녀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 ⑤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세대 간의 평등한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 23058-0222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안전 보장에 있다.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개인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 을: 국가는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한다. 국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병: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향유가 불확실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성립된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한다.
(나)	

보기

- ㄱ. A: 인간의 좋은 삶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ㄴ. B: 구성원들이 모든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ㄷ. C: 국가의 권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계약으로 형성된다.
- ㄹ. D: 구성원들은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23

▶ 23058-0225

13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배아가 완전히 발달한 인간 존재와 도덕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 배아는 완전히 발달한 인간 존재와 동격은 아니므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인간 배아를 단순한 사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간 배아를 단순한 사물로 간주한다면 잠재적인 인간 생명체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배아를 타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기본 구조를 일차적 주제로 삼는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며, 배분되는 몫의 문제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취급된다.

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그것은 소유물의 최초 취득, 소유물의 이전,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이라는 주제이다.

병: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전제를 반대한다. 따라서 정치가들이 정치권력 이외의 다른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 ② 불가침의 권리를 지닌 인간 배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 ③ 인간 배아는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모든 연구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 ⑤ 잠재적 인간인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① 갑: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개인의 삶의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을: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병: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 ④ 갑과 을: 분배 절차의 정당성이 충족된다면 그 분배의 결과도 정의롭다.
- ⑤ 을과 병: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23058-0224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23058-0226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을: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발 도상국 극빈층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ㄱ. 갑: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항상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ㄴ. 갑: 자유와 평등이 미확립된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원조의 직접적인 목적은 절대 빈곤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도로 조직된 산업 사회에서 좋은 명성의 바탕은 금전적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보여 주고 또 좋은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재화의 과시적 소비이다. 이 수단은 유한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의 저 밑바닥까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 아주 지독한 궁핍함이 압박해 오지 않는 한, 이런 부류의 소비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사회의 그 어떤 계층도 수준 높은 정신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물질적 결핍을 견디려고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① 재화의 낭비는 부의 소유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가?
- ② 좋은 명성의 지속적인 유지는 부의 획득만으로도 충분한가?
- ③ 산업 사회에서는 부가 있어야 좋은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 ④ 유한계급 이외의 계층에서도 과시적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가?
- ⑤ 정신적 필요가 물질적 결핍의 압박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는가?

▶ 23058-0227

1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대인(大人)인 정치가의 일이 따로 있고, 소인(小人)인 일반 백성들의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다.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

을: 사람의 삶은 집단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생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예의(禮義)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빈부귀천의 등급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의로 구분하니 화합하고, 화합하니 하나가 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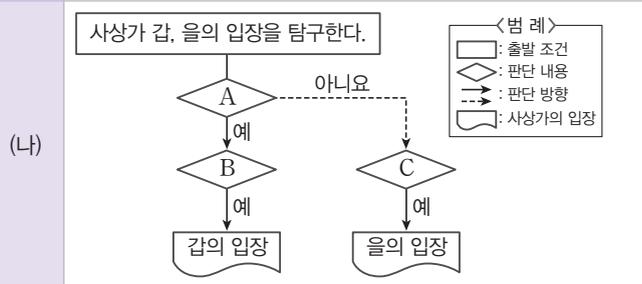
- ㄱ. 각자가 맡은 직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ㄴ. 올바른 다스림을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ㄷ. 사회적 역할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ㄹ. 예에 따른 직분 수행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23058-0228

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즉 불복종할 이유가 복종할 이유보다 우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을 계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의 실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 ㄴ. A: 독재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효율적인 저항 수단인가?
- ㄷ. B: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는가?
- ㄹ. C: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29

1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대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며,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나) 이웃 간 종종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

- ① 이웃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예(禮)를 실천해야 하네.
- ②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야[恕] 하네.
- ③ 이웃에 대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忠] 태도를 지녀야 하네.
- ④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大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네.
- ⑤ 이웃에게 준비친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하네.

▶ 23058-0230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랑과 성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성(性)의 일차적 목적은 출산이다.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부도덕한 것이다. 성은 사랑, 결혼, 생식 모두와 관련을 가질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을: 성의 일차적 목적은 쾌락의 추구이다. 성은 서로 합의하는 성인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 학생 답안

사랑과 성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자발적 동기가 전제된 성적 관계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자발적 동기가 전제된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성적 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성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 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23058-0231

1 (가), (나) 윤리학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가) 윤리학의 목적은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규범 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윤리학의 과제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 (나)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그리고 인식론적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윤리학의 과제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과 도 덕적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 ① (가): 도덕을 경험적 연구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한다.
-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 석하는 데 있다.
- ③ (나):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 또는 도덕적 지식의 존재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
- ④ (나): 윤리학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가)와 (나): 윤리학의 본질은 사회의 도덕률에 대한 객관적 기술에 있다.

▶ 23058-0232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필연적 행위이다. 내 가 뜻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 나는 물론 경향 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 므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다.
- 을: 도덕적 의무에 대한 감정과 독립적으로 두 가지 쾌락 중에 서 어떤 한 종류의 쾌락을 확실하게 더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고등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 과 만족을 혼동하지 않으며, 불완전하더라도 고등 능력을 발휘해서 얻을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 ① 갑: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없다.
- ③ 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뛰어난 쾌락만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는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23058-0233

3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 만이라도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 아간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남으로 말 미암은 것이 아니다.
- 을: 성(聖)을 끊고 지(智)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나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 다.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들이 있지 않게 된다.

보기

- ㄱ. 도(道)를 따라 살려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 ㄴ.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는가?
- ㄷ. 인이 아닌 법(法)과 형(刑)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 ㄹ. 성인(聖人)이 되려면 덕을 지니도록 수양을 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34

4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 져 있듯이, 성애(性愛)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 해져 있는 것이다. …(중략)… 인간은 두 인격이 교호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 없이는 동물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다. 성 (性)에 있어 자신의 동물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 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 한 의무로서 정숙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 을: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악 금지의 원리와 자율성 존 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적 쾌락의 추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사랑만이 인간의 성을 도덕적으로 만듭을 간과한다.
- ② 출산과 양육은 성애의 자연적 목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③ 타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모든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을 간과한다.
- ④ 성은 결혼을 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생식을 위한 도구적 가 치만을 가짐을 간과한다.
- ⑤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다른 인격을 이용하는 것은 결혼이라 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됨을 간과한다.

9 갑 사상가가 을과 병 사상가 모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에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의 엄격성을 형벌이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형벌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종신 노역형에 비해 적다는 점에 비추어 유용하지 않다.

병: 살인을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살인자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사회 계약을 파괴한 자로서 국가의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 ① 생명 처분권을 양도할 사람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② 형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시행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살인자는 도덕적 인격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함을 간과한다.
- ④ 사형은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권리가 있음을 간과한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화살 만드는 자가 어찌서 갑옷 만드는 자보다 어질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화살 만드는 자는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자는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한다. 그러므로 생업의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한 한 사람의 몸에는 여러 장인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 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
- ②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다.
- ③ 백성을 교화하는 일은 소인이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도덕성의 보존과 함양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택해야 한다.
- 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국가란 신의(信義) 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사람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전쟁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p> <p>을: 인간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의 재산 보존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그 권력은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된다.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 그 신탁은 철회될 수 있다.</p> <p>병: 사회 계약이란 각자가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 대신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 → A →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생명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했음을 간과한다.
- ② B: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해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인간은 국가 속에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정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력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그 성격상 호혜적 관계를 넘어 비호혜적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로 확장된다. 인간이 저야 할 책임 중 일차적 의무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 ① 인간에게 주어진 일차적이며 절대적인 의무는 인류의 존속이다.
- ② 인간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③ 인간이 저야 할 책임은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
- ④ 인간이 저야 할 책임은 인과적 책임이 아니라 예방적 책임이다.
- ⑤ 인간은 자신과 상호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23058-0243

13 을 사상가가 갑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선왕은 도에 맞지 않아 생겨나는 혼란을 싫어하여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제정하여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니, 그 음악은 즐거움을 다하되 사람의 착한 마음을 촉발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한다.

을: 음악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재물을 축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며 음악에 힘쓰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보기

- ㄱ. 음악은 백성들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함을 간과한다.
- ㄴ. 음악을 구분하여 올바른 음악만을 연주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ㄷ. 음악은 사회 성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함을 간과한다.
- ㄹ. 음악을 평가할 때 음악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3058-0244

14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기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이 스스로 인간에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 든가, 기술에 의해 인간이 부품화될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간이 기술을 어떤 조건 아래 놓는가 하는 것이다.

을: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대 기술에서 지배적인 탈은폐 방식은 일종의 닭달이며,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에너지로 이해하는 인간은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것으로, 또는 성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그저 한낱 부품으로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① 기술 자체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 ② 기술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 ③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④ 현대 기술이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여기도록 하고 있는가?
- ⑤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 부족은 비인간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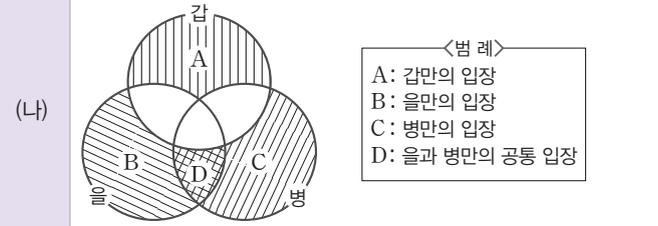
▶ 23058-0245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을: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들은 마치 다른 존재들을 위한 자원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삶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해악이 다른 존재들이 얻는 이익들의 총합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병: 대지 윤리는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 존속할 권리를 가지며,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A: 인간에 대한 의무 외의 다른 도덕적 의무는 없다.
- ㄴ. B: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
- ㄷ. C: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ㄹ.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23058-0246

16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수 대접을 보면 국수와 국물이 주된 것이지만 고명이 그 위에 얹혀 있어서 맛을 더해 주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도 이처럼 주류 문화가 중심을 잡고 비주류인 다른 문화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샐러드 그릇을 보면 다양한 야채와 과일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도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 ③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는가?
- ④ 비주류 문화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가?
- ⑤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23058-0247

1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오로지 노력한 사람만이 일자리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의 부당한 차별의 잘못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기회가 실제로 불평등하게 주어졌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 ①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유발한다.
- ②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노력에 따른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
- ③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 ④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보상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평등의 이념에 근거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23058-0248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원조의 의무와 관련된 원칙은 국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 국제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적이고 적절한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을: 원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벵골인인지가 나에게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① 갑: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된다.
- ② 갑: 인권을 보호하고 의사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을: 원조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이므로 그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해외 원조와 국내 공공 부조의 도덕적 차이를 고려하여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23058-0249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 상태는 오직 법적 상태에서만 보증될 수 있다.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폭력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

- ① 갑: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지녀야 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②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주권적 권력을 평화 연맹이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③ 을: 문화적 폭력만 제거하면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 ④ 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 23058-0250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하는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양심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명백히 한다. 그런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을 중단시키려 할 때에는 중단시키려 하는 악의 크기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을 저울질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라고 보며, ㉡부정의의 정도가 심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공유된 정의관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시민 불복종을 행할 경우 그 행위가 미칠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 ㉤ ㉤